— 1 —

The Korea Times Toronto

週刊한국

(일간) No. 581 1981년8월1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August 1. 1981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卷末특집

세계最小獨立國이자 세계最大의 地球國家

바티칸 教皇庁의 実体

◇누구보다도 활달하게 「敎皇活動」을 하고 있는 요한·바오로2세 敎皇。그는 共産國폴란드출신의 敎皇으로 全世界 가톨릭信者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바티칸은 면적 0.44평방km, 인구 약 1천명인 작은 〈나라〉다。그러나 이 작은 나라가 全世界에 끼치는 영향은 美·蘇 두 강대국과 비동하게 비유될 수있다。이제까지 2백64명의 教皇이 승계해오면서 이룩한 바티칸의 歷史는 곧 世界史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고 美·蘇가 대립한 現世界情勢에서 바티칸의 위치는 더욱 돋보이고 있다。全世界에 퍼져있는 聖職者가 1백60여만명。이 막대한 組織과, 이 組織을 움직이기 위한 엄청난 財力。바티칸은 또한 CIA나 KGB보다 더욱 상세한 世界의 情報를 쥐고 있다。최근 이채롭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한·바오로 2世 教皇의 움직임속에서 東西對決의 〈감추어진 安全밸브〉役을 담당하고 있는 바티칸의 實體를 近着外誌를 통해 照明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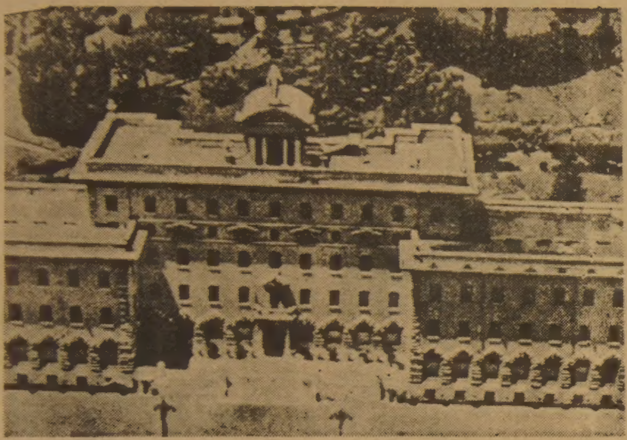
■東西外交의 비밀무대

바티칸이라고 하면 〈성스럽고, 속세의 잡무와는 인연이 먼 별천지〉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로마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은 면적 0.44평방km, 인구 약 1천명인 세계 최소의 독립국이란 기초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합격권에 든다。

그러나 바티칸의 일면은 일반인의 그러한 상식과는 달리, 국제정치의 비밀무대이기도한 것이다。

바티칸은 지리적으로 세계 최소의 독립국임에는 틀림없지만 地政學的으로 보면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가톨릭 교도 7억3천만의 인구를 포용하는 〈세계 최대의 地球국가〉인 것이며, 그 국제적인 영향력은 미국·소련등 초강대국들로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敎皇이 거주하고 있는 敎皇廳의 바티칸宮。

0.44평방km에 인구 고작 千여명, 歷代敎皇은 2백64명

暗殺당한 敎皇 6명에, 女敎皇 요하나도 있었다는 說

全世界에 7억3천만敎徒의 組織과 財力

美CIA나 蘇KGB보다 生生한 情報網

바티칸에는 『바티칸 에서는 모든 것이 금지되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가능 하다는 오랜 속담이 있다。

따지고 보면 사실상 옳은 이야기다 無神論을 표방하는 공산주의는 바티칸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지만 현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다름 아닌 공산주의국가 폴란드 출신이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국가에서 교황이 탄생 한다〉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현재 그 교황은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바티칸에는 지금까지 제1대 교황 베드로 이래 2백64명의 교황이 군림해왔다。아무리 신성불가침적인 교황이라고는 하지만 그중에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시도해본 교황도 있게 마련이어서 몽테뉴의 〈수상록〉(가르니에版)의 제1권 20장에는 〈腹上死한 우리 교황들 중의 한 사람〉이란 귀절이 등장한다。

이 엉뚱한 기적은 믿기 어려운 일이고 또 믿어서는 안될 일이기는 하지만 하여간에 가르니에版의 註에는 「그 교황은 제197대 요한 22세(재위1316~34)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밖에도 암살당한 교황이 6명이나 있다는 것은 약간 뜻밖의 일이다。그러나 그보다 더욱 뜻밖인것은 〈女敎皇〉이 있었다는 사실이다。그것은 레오 4세(재위847~855)가 서거한뒤, 교황으로 선출된 요하나가 바로 그 女敎皇。가톨릭에서는 〈전설상의 교황〉으로 되어있는 요하나는 바티칸의 역대 교황 공식 명단에는 番外로 기재되어있다。그러나 프랑스의 年鑑〈QUID〉에 의하면 「전설의 인물 요하나는 어릴적 부터 로마에서 男裝으로 키워졌으며, 성인이 된 뒤에 요한 앙그리커스라는 이름으로 聖職者가 되었다。레오 4세가 서거한 뒤인 855년에 교황으로 선출되었으며, 2년 7개월 4일에 걸쳐 교황으로서 군림했으나 여자임이 발각되어 재판에 붙여진 결과 사형을 선고받았다。

처형은 「말에 매달아 거리를 끌고다니는」 참혹한 형식으로 행해졌으며, 그녀는 로마 교외 2km지점에서 사망했고 그 자리에 「매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그러나 바티칸의 공식기록에는 레오 4세가 서거한 지 수 주일 후, 베네디투스 3세가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여성교황〉이 존재한 여지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공식명부에 番外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平和증진에 공헌

시계 바늘을 20년 전으로 되돌려보기로 하자。1961년 9월 21일, 소련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 및 정부기관지 이즈베스치야에 흐루시초프 제1서기와의 회견기사가 게재되었다。그 속에서 흐루시초프는 로마교황 요한 23세가 9월 10일에 행한 연설에 대해 다음과같이 언급했다。

『로마교황이 각국 정부에 대해 세계평화의 유지강화라는 역사적 임무의 중요성을 환기한것은 그러한 노력이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확고한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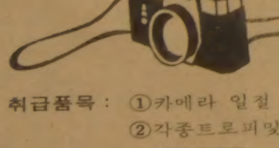
TIE CITY Square One 275-2187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마감 연기
—사진촬영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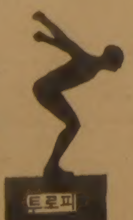
지난6월 나이아가라에서 열렸던 제6회 사진촬영대회 출품마감을 다시 8월15일까지로 연기합니다.
이것은 당일 대회에 참석했으나 여름휴가등으로아직 작품을 만들지못한 많은 사진애호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협회와 한국일보사는 마감기일을 또다시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출품 희망자는 마감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작품 제출처
새한칼라현상소, 킴스카메라, 한국일보사.
—한인사진협회 · 한국일보사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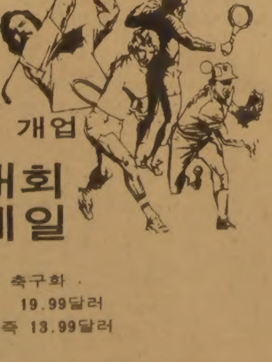
킴스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취급품목 : ①카메라 일절
②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③여권사진및 시민권 사진즉석촬영 (5분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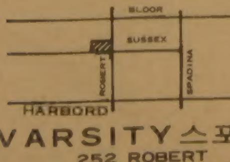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운동구점 개업
축구대회 특별세일

①어린이 축구화 · 가죽 19.99달러 합성가죽 13.99달러
②축구대회 : 단체유니폼 마춤
③각종 트로피및 감사패 주문
④ROLLER스케이트
사이즈 : 1 to 5, $39.00
Dominion Roller스케이트 $78.00



VARSITY스포츠점
252 ROBERT
967-7304 이 건 영

SunLife OF CANADA

취 급 보 험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R.S.P

김 신 명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 B)922-3111 R)439-8885

"모든게 禁止되나 동시에 모든게 可能"속담
80餘個國과 外交관계, 國際政治의 舞臺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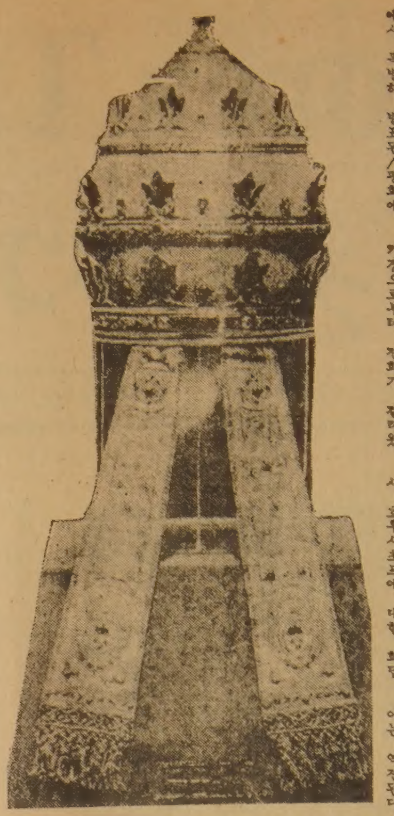
보장에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레이건대통령 취임 이후 다소 냉각된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날과 같은 데탕트 시대에 있어서는 소련 지도자가 이런 정도의 말을 하더라도 별로 뉴스가 되지않지만, 1961년이라는 싯점에서는 쇼킹한 발언으로 여겨졌다. 당시 바티칸과 모스크바는 스탈린시대 이래의 <破門상태>가 계속되어 있었고 더구나 그해 8월13일에는 베를린 장벽이 쌓여져서 동서간의 긴장이 가일층 치열해진 해였으므로 이 후루시초프의 발언이 갖는 의미는 자못 큰 바가 있다.

후루시초프가 지적한 9월10일의 교황연설의 내용은 베를린의 벽을 둘러싼 동서간의 긴장을 배경으로, 후가지에서 특별히 발표된 <평화에의 호소>였다.

그러나 교황 자신도 설마 소련이 이런 형태로 적극적인 반응을 표시해 올 줄은 몰랐던 것 같다. 그 며칠뒤 교황은 교황청 기관지 <옵세르바토레·로마노>를 통해서 『평화증진에 관해서라면 소련과도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는 뜻을 시사한 기사를 게재시킴으로써, 후루시초프의 담화에 응수했다. 그해 11월 25일, 요한 23세는 80세의 탄신일을 맞게되는데, 탄신축하회는 11월4일에 행해졌다. 그날 하오1시께 교황청 국무장관인 차로냐니추기경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것은 외교 루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내져온 후루시초프 제1서기로 부터의 교황탄신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화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교황의 건강을 축하하고, 지구상에 평화를 가져오기위한 숭고한 노력의 성공을 빈다』는 것이었다. 이 축전이 뜻하는 바는 소련이 바티칸과 어떤 관계를 갖고 싶어한다는 것이 일목요연했다.

오랫동안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던 바티칸의 對蘇접근이 가능해진 것이다. 교황을 비롯해서 그 측근이 측시 후루시초프에 대한 회답을 검토하기 시작한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바티칸은 최소의 독립국인 동시에 최대의 地球國家라는 사실로 해서, 외교에 압도적인 중점이 두어지고 있지만, 사실 바티칸의 외교망은 세계 최대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바티칸은 세계 80여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 대사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표면적인 외교활동의 스케일은 미·소 양 초강대국의 그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바티칸에 직결되는 가톨릭교회의 네트워크를 계산에 넣으면, 스코어는 역전된다.



◇다이어먼드, 에머럴드, 루비를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教皇의 冠。싯가 2백억원에 이르는 세속적인 가격보다 범할수 없는 신앙의 상징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80년 현재, 전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가톨릭관계 성직자를 살펴보면,

신부 403, 781명
修士 68, 426명
修女 946, 388명
신학교 학생 200, 406명
합계 1, 619, 001명

이 된다.

이들 성직자들은 뉴욕 변두리의 중심부에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奧地에 이르기까지 지구상 도처에 定住하고 있으면서 가톨릭 선교에 전념하고 있다. 그들은 외교관은 아니지만 선교사로서 그 고장 사람들과 밀착된 일상생활을 통해<생생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10년~20년에 걸쳐 한 고장에 정착하면서 얻은 정보이므로, 그 정확성이나 높은 밀도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즉 바티칸은 대사관으로부터 보내오는 정보 외에 40만을 넘는 가톨릭선교사들로부터의 농도짙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므로 정보수집면에서도 CIA나 KGB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 23世의 호소

1962년 10월, 미·소의 대결이 군사면으로까지 확대된 <쿠바 위기>가 일어났던 달이다. 세계의 관심은 케네디 대통령과 후루시초프 소련 제1서기가 전쟁을 선택하느냐 평화를 선택하느냐에 집중되어 있었다. 로마교황으로서도 이에 무관심할수가 없었다. 잘 알려지다시피 케네디는 가톨릭교도이며, 후루시초프도 바티칸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황에게 있어 국제위기 조정자역에 나설 절호의 찬스였다.

10월 22일, 케네디는 텔리비전 연설을통해 『쿠바 내에 소련이 공격용 미사일발사기지를 건설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 중대한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규정하고 『쿠바에 미사일을 운반하는 소련선박이 미국 해군의 停船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격침하겠다』는 對소련 강경자세를 표명했다.

그 결과, 세계는 가공할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다. 교황은 사태를 중시하고 10월25일 아침, 로마주재 미·소양국 대사를 초치하여, 그날 낮 바티칸 방송을 통해 방송할<평화에의 호소> 연설 초고를 手交했다.

요한 23세의 메시지는 감동적인 평화호소였다. 다음날인 26일자 프라우다는 이 교황 메시지를 제1면에 게재하였고 28일에는 케네디대통령 앞으로 『미국의 쿠바에의 不侵略을 신뢰하고 공격용무기를 쿠바基地로부터 철수하겠다』는 내용의 회답을 보냄으로써, 쿠바위기는 사실상 회피된것이다.

이와같이 쿠바위기를 해결함에 있어 바티칸이 막후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것은 거의 알려져있지 않지만 바티칸 내에서는 이 성공에 힘입어 東유럽 여러나라에 바티칸의 영향력이 미치는 가톨릭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이 신중히 검토되기 시작했다.

12월 13일, 케네디 대통령의 친구이며 가톨릭 교도인 미국인 저널리스·노먼·카즌스씨(당시<새터데이·레뷰>편집장)가 모스크바를 방문, 후루시초프 제1서기와 회견했다. 그 자리에서 카즌스씨는 『바티칸과의 사전협의에 기초를 두어, 후루시초프에게 바티칸과 외교관계를 가질 의사가 있는가』를 타진하고, 동시에 『소련에 투옥되고 있는 스리피 주교의 석방을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러해 후루시초프는 스리피 주교의 석방문제 검토를 약속했다. 12월 19일 카즌스씨는 바티칸에서 요한 23세와 만나 후루시초프와의 회견 내용을 보고했고 동시에 후루시초프로부터 교황에게 가는 짤막한 크리스머스 메시지를 전달했다. 교황은 즉시 답례 메시지를 후루시초프에게 보냈다.

12월 27일자 프라우다는 교황이 전세계에 보내는 크리스머스 메시지의 발췌문을 게재했다.

해가 바뀌어 1963년1월25일, 로마주재 소련 대사가 이탈리아의 판파니 수상을 방문, 『스리피 주교를 석방하겠다』는 후루시초프 제1서기의 메시지를 바티칸에 통지해 주길 부탁했다. 2월2일, 스리피 주교는 석방되었지만 국외추방 (홍콩경유)이 조건이었다. 본인에게 있어서는 가혹한 처사였지만 바티칸측으로 볼때는 소련으로 하여금 석방케했다는것 자체가 커다란 플러스였다. 그러나 후루시초프의 대소외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스탈린 "教皇은 몇師團 거느리고 있냐"에
비오12세 "저 세상서 내軍團과 만나게 될것"

2월28일, 로마에 체재중인 후루시초프의 사위인 알렉세이·아주베이 부부가 교황에게 알현을 신청해왔다. 아주 베이라면 당시 정부기관지인 이즈베스차紙의 편집장이며, 후루시초프의 오른팔로서 맹활약중이던 거물이다.

소련이 이와같이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과연 이 시기에 아주베이를 바티칸에 맞아들이는 것이 적당한 일인가. 교황 자신도 잠시 망설였으나 3월 1일, 아주베이 부처를 접견하기로 결정, 교황 알현은 3월 7일에 실현되었다.

■초절약형 교황

소련정부 고위층이 교황에게 알현을 요청하고 교황이 접견한다는 일은 1950년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50년대의 교황 비오 12世는 1939년부터 재2차대전을 거쳐 58년까지 바티칸에 군림했었는데, 재위 20년간을<反共십자군 활동>에 바쳤다고 할만큼 공산주의에 대해선 철저한 노선을 걷고 있었다.

소련측에서도 당시에는 스탈린이<광신적 스탈리니즘>을 펴고 있었으므로 바티칸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글자 그대로 손을 써 볼 길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스탈린은 바티칸의 존재 따위는 도대체 문제로 삼기조차 않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모스크바로 스탈린을 방문한 처칠 영국수상이 스탈린에게 『바티칸과 화해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스탈린은 그 독특한 웃음을 띄우고 『그대 로마 교황이란 자는 몇개 사단이나 거느리고 있단 말이오』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속편이 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비오 12세는 『스탈린은 저 세상에서 나의 軍團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다. <지옥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이라고 한 점은 교황답다고나 할까.

이 교황은 전기요금이 아깝다고 스스로 스위치를 끄고 다녔으며, 바티칸 내에서의 편지는 봉합하지 않은채 배달한다는 규칙을 만들어 같은 봉투를 몇번이고 사용하도록 했다는 일화를 남긴 인물이다. 오늘날과 같은 자원난시대라면 <超절약형 교황>이라고 매스컴이 화제로 삼음직했겠지만, 어쨌든 측근자들은 상당히 애를 먹었을것임에 틀림없다. 역대 교황가운데, 자신의 유언을 헌 봉투 뒷장에 적은 사람은 비오 12세 뿐일것이다.

비오 12세는 이탈리아의 항복으로 독일군에 포위된 바티칸 내에 있으면서, 히틀러의 유태인 박해에 도전해서 5천명 이상의 유태인을 로마교회나 수도원에 감추어줌으로써 구원해 준 업적을 남겼다.

■신출귀몰의 大主教

비오 12세의 후계자로 선출된 것이 요한 23세였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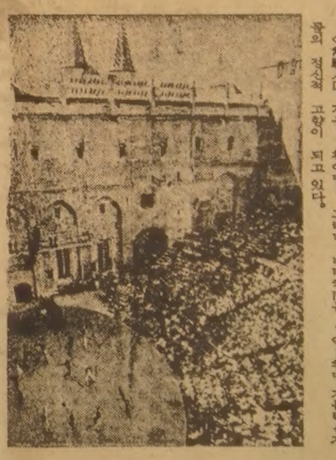
幕後서 쿠바危機조정, 共產圈서 스리피主教와 민첸티 樞機卿 생환하고
對蘇和解에 키신저 凌駕하는 超外交家 카자롤리 樞機卿

요한 23세 역시 처음부터 對蘇 화해의 자세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 즉위한 지 2년째인 1960년 1월에 행한 연설 속에서는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자와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언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후인 3월에는 요한 23세는 후루시초프의 특사 아주베이를 맞이해서 접견했다. 무엇이 교황으로 하여금 對蘇 화해를 단행하게 했는가.

바티칸 외교의 목표는 첫째, 기본목표로서 가톨릭교의 포교에 있으며, 그를 위해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발전하든가, 가능하다면 創出해낸다는—2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오로 6세는 교황청에서 제일 간다는 외교의 베테랑 카자롤리 추기경을 對공산권 담당으로 임명했다. 카자롤리 추기경은 우선 유고와 협상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는 다시 헝가리, 체코, 東獨 등과도 70년대 전반에 걸쳐 교섭을 진행, 상당한 관계 개선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헝가리에서는 헝가리사태 (1956년) 때 부다페스트의 미국대사관에 피신하여, 그후 15년에 걸쳐 대사관내에서 망명생활을 보내고 있는 민첸티 추기경의<해방 국외 탈출>을 교섭, 71년에 그를 바티칸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카자롤리 외교의 특징은 교섭에 있어 시간을 아끼지 않고 끈기있게 기다림으로써 성공시키는 것인데, 키신저가 무색할 정도로 전 세계를 무대로 신출귀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카자롤리 대주교는 프라하,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모스크바, 베를린, 베오그라드, 헬싱키 등지를 날렵하게 날아다녔고 필요하다면 쿠바의 아바나까지도 날아갔으며, 1968년에는 파리에 나타나 베트남평화회담의 북측 대표단과 회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슈퍼 외교가>로 부상한 것이다.



◇敎廷人口 겨우 1천여명…。그러나 바티칸市는 7억3천만 가톨릭신자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고 있다.

■폴란드인 교황의 탄생

바오로 6세와 카자롤리대주교가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려는 싯점인 1964년에 후루시초프 제1서기가 실각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65년에 교황이 유엔본부를 방문했을 때, 놀랍게도 그로미코외상 측에서 교황에게 알현 신청을 해왔다.

이 의례적인 알현이 바탕이 되어 66년4월 그로미코는 바티칸을 공식방문했다. 교황과의 회견은 45분간이었으며 두 사람은 평화와 세계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로미코는 포드고르니 소련 최고간부회 의장에게 바티칸 공식방문을 권고하여, 67년1월에 포드고르니 의장과 바오로6세의 회담이 실현됐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포드고르니는 신분을 밝혀 꺼고 들어와, 회담 중에 교황에게 『담배를 피워도 좋으냐』고묻고, 교황이 『피우시지요』하자, 뻐끔뻐끔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어쨌든 모스크바—바티칸간에 몇 채널 사이에 적롱 파이프가 개설된 의의는 자못 크다. 그로미코는 그뒤 1970년11월, 74년2월, 75년6월 그리고 79년1월등 합계 4회에 걸쳐 바티칸을 방문했다. 한편 카자롤리 대주교는 71년2월에 소련을 공식방문했다.

그럼 왜 無神論者인 그로미코가 왜 4회나 바티칸을 방문했는가. 소식통에 의하면 소련이 노리는 바는 바티칸의 영향력을 빌며 하는것이라한다. 한편 바티칸측으로서도 전 유럽안보의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점에서 소련파의 접촉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있다.

바오로 6세, 그리고 현교황 요한·바오로 2세도 소득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 소련에 대해서는 소련국내에 있어서의 가톨릭교회및 교도들에 대한 대우개선을 요구하고있다.

공산국 폴란드인인 요한·바오로2세의 등장은 소련에 있어 날벼락이었을지도 모른다.

공산권의 대주교, 추기경이었던 인물은 공산권내의 가톨릭교회의 상황에 대해 정통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소련이 어떤 수단으로 탄압을 가해 왔는가는 몸소 체험함으로써 잘 알고 있는것이다.

요한·바오로 2세는 소련쪽에서 본다면<공산권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있는 사나이>로서, 교황이 아니었다면 오래전에 KGB 등에 의해 제거되었을지도 모르는 인이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바티칸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폴란드인이 교황에 선출되리라고는 아마 전 세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교황의 일을 예상하고 적중시친 사람이 있었다.

교황청 앞 광장에서 약간 옆으로 들어간 보르고 세르스피리트街 10번지의 건물 3층에서 구둣방을 하는 영감님 페레스포로·칼보니 씨가 바로 그 사람이다. 벌써 80살을 넘은 구두기술자인데 아직도 당당한 현역으로서 1939년 이래 40여년 동안이나 교황의 신발을 만들어 왔다. 비오 12세, 요한 23세, 바오로 6세, 요한·바오로 1세, 그리고 현 교황인 요한·바오로 2세 등 5대에 걸쳐 교황의 구두를 지어 올렸는데 이 구둣방 영감님이 대단한 소식통이어서 앞서의 교황 선거 때는 폴란드 출신의 가롤르·보이티와 추기경이 교황에 선출될 것이란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폴란드出身 現教皇 요한·바오로 2세는 庶民的…
「太陽의 활동」 運勢…來賓 운전사에 祝福도

非이탈리아인 추기경이 교황에 선출된것 자체가 4백55년만의 일이며 게다가 그것이 공산권 내의 폴란드출신이라니 너무나 뜻밖의 일인데 칼보니 영감님이 이엄청난 일을 적중시킨것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면 지극히 간단한 일이었다. 새교황선거가 실시되면 교황청의 고관이 미리 칼보니영감님 구둣방을 찾아온다. 그고관이 당선이 확실시되는 추기경이 교황에 즉위할때 신을<붉은 구두>를 주문해두는 관습이 있어왔던것이다. 주문은 누구의 구두임을 밝히지 않은채, 사이즈만을 지시한다.

따라서 구두임자가 누구인가는 알수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78년의 선거때는 주문 받은 구두의 사이즈가 굉장히 컸던 것이다.

거기에서 칼보니 영감님은 『이탈리아인에게는 이렇게 큰 발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 다음 교황은 외국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이제까지 만들어온 추기경들의 구두칫수를 조사해보니, 다름아닌 보이티와 추기경의 구두사이즈와 일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둣방 영감님이 다크호스를 정확하게 알아 맞힌 것이다.

칼보니 영감님이 만약 신문기자였다면 그야말로<세기의 대 스쿠프>를 했을 터이지만 구두직공인 이 영감님은 그저 묵묵히<붉은 구두>를 만들며 혼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과연 바티칸다운 에피소드이다. 교황의 구두라고는 하나 사실은 슬리퍼에 가까운것이다. 따라서 구두보다 간단히 만들 수 있지만 가죽(키트)제품으로서 앞쪽에 십자가를 수놓는 특제로서, 상당히 화려한 신발이라고 한다.

『이제까지는 교황께선 스스로 걷는 일은 별로 없겠으므로 슬리퍼도 오래 갔지만 요한·바오로 2세는 잘 걸어다니는 편이므로 나도 바빠질 것이라』고 칼보니 영감님은 말하고 있다.

■外國방문에 바쁜 교황

칼보니 영감님 말대로 교황은 참으로 걷기를 좋아한다. 요한·바오로 2세는 알현이 끝나면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천송을 나와 운전사에게도 축복을 내리는 등—대중과의 접촉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당연한 일이지만 걷는 횟수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교황의 경우는 바티칸 내는 고사하고 지구를 무대로 부지런히도 다닌다.

어쨌든 78년 10월에 취임한 직후부터, 이탈리아의 지방자은 교회의 방문을 시작으로, 2년 동안에 멕시코, 폴란드, 아일랜드, 아메리카, 터키, 아프리카, 프랑스, 브라질, 서독 등을 방문하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필리핀과 일본을 방문하고 있으니, 교황의 구두도 무척이나 닳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교황의 구두가 닳는다는 것은 그 만큼 외교실적이<두께>를 더해간다는 걸 뜻한다.

교황의 해외여행이라면, 얼마 전까지만해도 임금님의 행차만큼이나 한가롭고 느릿느릿한 것이었다. 그러나 요한·바오로 2세의 해외여행은 그렇지가 못하다. 폴란드출신의 교황이며, 그 폴란드가 동서긴장의 초점으로서 소련의 군사개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한폭탄적인 상태가 계속되고있는 만큼, 그것만으로도 교황은 원하건, 원하지않건간에 국제분쟁의 소용돌이 속의 인물이며, 소련측에서 보면 평화에의 마지막 열쇠를 쥔 인물이기도 하다.

폴란드에는 가톨릭교도가 3천4백만명이나 있으며, 공산주의자는 1백만명이 있다. 그러나 일요일에 교회에서 신도수를 헤아려보면 언제나 합계 3천5백만명이나 된다—는 조크가 있을 정도로 가톨릭교회의 세력은 막강하다.

그러나 강대한 만큼, 힘의 사용에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가 일어난다.

자주관리勞組인 <連帶>의 바웬사 위원장의 고민도 대단하겠지만, 바티칸의 입장에서 對소련관계까지 계산에 넣어 대국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교황의 心勞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프랑스의 주간지 <파리·마치>는 요한·바오로 2세는 만일 소련이 폴란드에 군사개입을 하게 되면 즉시 바르샤바에 뛰어들어, 자신의 몸으로 대결할 결의를 굳히고, 로마공항에는 교황전용기가 어느 때고 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도하고있다.

이런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가령 소련군 탱크 앞에 로마교황이 두 팔을 벌리고 가로막는다고 할 때 소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황을 향해 발포한다면 그 순간 전 세계의 가톨릭교도 7억3천만명을 적으로 만들게 될것이므로<프라하의 봄>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

프랑스의 신문 <르·피가로>(1월 13일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폴란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폴란드출신의<교황이 발휘할 抑止力>이며 탱크나 대포가 아니다. <교황의 억지력>은 무력한 유엔보다 의지할만 하다.

■바티칸의 財政

바티칸의 재정은 그 역사를 통해서 비밀의 베일에 가려져 왔다. 온갖 추측만 떼돌았을 뿐 전혀 밝혀진 바가 없으나, 현교황인 요한·바오로 2세는 취임 하자마자, 전통을 깨뜨리고 교황청 재정의 기본부분인 경상수지를 공개했다.

그 결과 1979년도의 경상지출은 연간 약 6백50억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주간女性

開港후 최대古船 輸入
仁川에 홍콩서 30億원…20만톤급

【仁川=聯】20만톤급 낡은 선박이 仁川항製鐵부두에서 고철로 이용하기위해 해체작업중이다. 仁川製鐵이 홍콩World wide社에서 30억원에 구입한 古船舶은 지난 71년 日本히다찌 조선소에서 진조된 선령10년이된 것으로 폐선이 되기까지 리베리아 국적으로 東南亞·中東·美洲 지역등에 원유를 운반했던 유조선 월드·프레스티지(World prestige)호. 仁川항 개항이래 수입된 古船중 가장 규모가 큰 이선박은 길이 3백20m 폭50m 높이27m로 서울운동장만한 크기의규모.

10여일간에 걸친 각종 정밀조사끝에 지난달21일 만조때를 이용, 仁川외항에서 製鐵부두로 예인한 이 매머드고선박은 앞으로45일간 2만명의 숙련공과 산소절단기 3백대가 동원되어 해체작업을 끝맺을 계획이다.

작년보다 43%늘어
올해 江原도내 鑛山서 광부93명숨져

【太白=聯】올들어 江原도내광산지구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광부는 모두9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3%가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동자부嶺東·嶺西광산보안출장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모두 1천3백여건의 재해가 발생, 이중 영동지방에서 45명, 영서지방에서 48명등 모두 93명이 사망했으며 2천여명의 중경상자가 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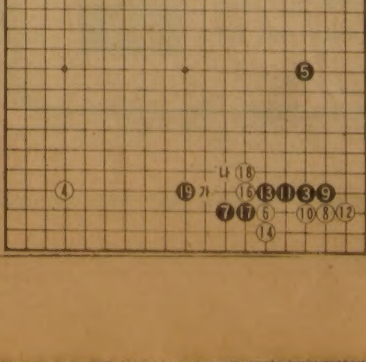
이같은 사망자수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嶺東지역 28명, 嶺西지역 37명등 모두 65명에 비해 43%가 증가된 것이다.

동자부관계자는 이같은 재해발생증가는 심부채탄에 따른 현상」이라고 지적, 「안전시설투자증대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12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4局 第2譜 1~19 (각5시간 덤5집반)

白(名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奉군.

자네도 혹사, 이들이 물도없는 라이벌인 관계로 무슨 앙숙간은 사이라 오해할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퍽소 무척친하게 지내는터라네. 다만 바둑판을 대하면 「시종일관 입꼭 다물고 멀중하는」 쉬이어서 관전기에 그대로묘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곳 瀋陽에서도 자네와마찬가지. 심지어 진행계가 쉬사때 물을 얼찌감치 떼어놓으며 하더군. 물론 접료 그렇지않다고 해명하고 또 실제로도 오늘아침 식당에서는 마침 趙治勳군의 本因坊도전 제5국을 화제로삼아 얼마나 화기에애하게 담소를 했다구. 그러니 자네도 그런 오해는 물도록하게.

어쨌건 새삼 관전기를 쓰는일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뭔가. 결론적으로 「진정한 적수」는 또한 「진정

右下에 第1局의 再演

한 知己」임을 꼭 알아두어야하겠네.

포석은 쉬미외주로만 알리진 도전자가 뜻 까닭에 회한하게 여겨졌을 뿐 각설하고 黑1, 3, 5의 3연성이지 사실, 알고보면 한50년전 일본에서 吳淸源·木谷實이 신포석을 개발한데서 비롯되어 크게 유행했고 현재도 세력포석의 보기처럼 되어있는 일은 말할나위도없네.

그리고 黑7도 역시 유행하이며 이번 시리즈에 으레 두어진것. 후학을 위해 좀더 설명하면 黑7은 일종유행의 변화랄까. 얼마전에는 7을 「가」로 높게 협공하고, 그걸 한동안 계속 두었다네.

白14면 黑은 「나」에 뛰는데까지가 정석완료인데 발빠르게 黑15에선편하여 白16의도전을 유도, 제1국파 똑같은형 (도전자가(흑)이 생겨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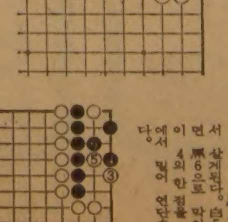
奉군. 자네라면 白20을 어디다 두겠나. 【一凡】

死活의 妙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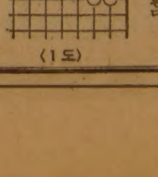
바둑

○白先으로 黑을 잡아라

<문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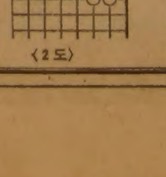
▲힌트=黑은 급소에 미리 한 점을 놓고 있어 무조건 잡을 수는 없다. 패를 만들면 그것으로 충분.



<1도>

正解

白1 黑2 다음에 白3 눈목자로 편다. 黑4로 붙여서 8까지는 당연하지만 白9로 나와서 패가 된다.



<2도>

失敗

白3을 날일자로 뛰면 黑4로 붙여서 살게된다. 白5를 면 黑6으로 막아서 白이 4의 한 점을 따면 뒤에서 먹어 연단수가 된다.

라(약4백55억원)인데, 이에대해 수입은 1백70억 리라(약 1백19억원)가 부족하여 적자회계임이 판명되었다.

바티칸의 경상 수입 중 중요한 것은 부동산 수입, 이자수입, 주식 배당금 외에 우표 판매수입, 전 세계에서 매년 6월 29일에 모여오는<교황에의 헌금>등인데,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이<교황에의 헌금>이 감소경향을보이고있고, 인플레이션의 진행(연 17%)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교황이 경리 내용의 공개를 명령한 이면에는 교황청의 정상운영과 원활한 포교활동을 위해서 불가결한 신도들의 헌금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다. 교황청에는 교황이 서거하면 바티칸 직원 전원에게 1개월분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관례가 있는데, 1978년에는 2개월 동안의 두 명의 교황(바오로 6세와 요한·바오로 1세)이 서거해서 더블·보너스가 지급되었고, 2회의 장례비, 교황선출비용, 새임시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연간 적자액인 1백19억원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또 하나 인플레의 여파로서 주목되는 것은 『인플레로 실질임금이 떨어져, 이 이상은 참을 수없다』고 교황청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1980년에 임금인상을 내걸고 파업을 한 일이다. 요한·바오로 2세는 이제 기업의 노무담당 임원같은 입장에서 노사관계에까지 골치를 썩여야할 입장이 된 것이다.

바티칸의 재정이 공개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업의 결산보고와 달라 개략적인 것이어서, 바티칸의 사업활동이나 그 수익 등에 대해서는 베일에 싸인 채이다.

多國籍企業, 국제투자, 금융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바티칸의 실태를 기술한 <더·바티칸·엠파이어>의 저자 니노·로·벨로(미국의 <비즈니스·위크>의 전 로마 특파원)는 그의 저서 첫머리에서 『1956년, 우리 가족이 로마에 와서 아파트에 살기시작했는데, 수도와 가스 사정이 나쁘고, 게다가 전화는 잡음이 몹시 심해서, 수도회사, 가스회사, 전화회사와 몇번이나 승강이를 벌였는데 얼마 뒤 이들 세 회사 모두 소유주 또는 대주주가 바티칸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뒤에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있는 빌딩 자체가 바티칸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회사의 소유라는걸 알고는 두번째로 놀랐다』고 술회하고 있다.

<비즈니스·엠파이어>로서의 바티칸의 역사는 기이하게도 세계 대공황의 해인 1929년에 시작된다. 이해에 조인된 바티칸—이탈리아간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라테라노 조약>에 의해 바티칸은 뭇솔리니 정권으로부터 영토의 배상등으로 총액 약 9천만달러를 지불받았다.

때마침 재정난으로 허덕이던 가톨릭교회에 있어 이 9천만달러의 현금은 그야말로 10년 가뭄의 단비격이었다. 그때까지 교황청을 괴롭혀왔던 <괘씸한 녀석>이었던 뭇솔리니는 하룻밤 사이에 전이탈리아의 영웅이 되었다.

폴란드엔 3천5백만 敎徒…영향력 無視못해
蘇軍개입하면 敎皇이 직접 對決說까지

뭇솔리니 자신도 이미지를 일신하여 상당히 덕을 본셈인데 바티칸은 그보다 더욱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비오11세는 이 9천만달러(당시에 있어서도 거액이지만 현재의 가치로는 40억달러 이상이 된다)의 관리·운영을 이탈리아상업은행의 부행장을 역임한 베르나르디노·노가라란 사람에게 위탁했다. 노가라는 전 교황 베네딕토 15세의 의뢰를 받아 교황의 개인재산을 터키帝國국채에 투자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실적이 있어 바티칸측에 발탁된것이다. 개인재산이 아니라 이번에는 바티칸의 거액의 공금이다.

교황청 내에 <특별본부>가 설립되고 노가라는 그곳에서 즉시 대규모의 내외 투자작전을 전개했다. 얼마가 지나자, 이탈리아 국내의 주요 기업의 임원명부에 바티칸과 연관이 깊은 신도들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다.

노가라의 국제투자 전략은 『투자는 종교적인 인연과 관계 없이 행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전개 되었다. 예를들면 1950년대에 그는 가톨릭국가인 스페인의 국채보다는 改新敎국가인 영국의 국채쪽이 견실하고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영국정부 발행의 국채를 구입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투자 전통은 현재에도 계승되고 있는 모양이다. 노가라는 理財에도 밝고 경기전망을 보는 눈도 날카로와서 상당한 이익을 올렸다. 만약 노가라가 없었다면 바티칸의 역사는 상당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1956년에 노가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현역에서 물러났으나 그후에도 고문으로서 후계자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오다가 58년에 88세로 사망했다.

■부동산회사에도 투자

노가라의 세계투자전략이 성공한 이면에는 바티칸이 세계에 펼쳐놓은 정보망의 힘이 컸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사·공사 등으로부터 보내오는 정세보고, 분석, 판단과는 별도로 전 세계에 흩어진 약 1천5백명의 성직자들이 농도 짙은 현지보고를 정기적으로 보내오는데, 이것은 宣敎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투자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보가 된다. 당연한 일이지만 주교, 대주교 중에는 전문가 못지 않은 경제通, 株式通들이 있으며, 故스펠만 추기경 같은 사람은 뉴욕 대주교시대에 정확한 월街의 정보를 바티칸에 보내주어 그 재정에 크게 공헌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바티칸과 세계 각지의 주교나 그밖의 성직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럽의 종교 소식통에 의하면, 그것은 전 세계를 향해 단파, 중파로 방송되는 바티칸방송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한다. 즉, 교황의 메시지나 일반 뉴스방송과는 별도로 각 현지에서 새벽에 청취할 수 있는 방송을 통해 바티칸 당국이 각지의 성직자들에게 <업무연락>을 전하는데 필요에 따라 암호도 사용된다고 한다.

앞에서 적은 로·벨로 씨에 의하면 이탈리아 최대의 건설회사(SGI)도 바티칸의 소유이며 이탈리아 각도시의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를 손대는 동시에 방계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댐공사, 발전소 건설, 터널, 고속도로, 지하철 건설 등에 진출하고 있다.

SGI는 미국에도 진출하여 60년대 초에는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부동산 개발회사>의 일반주식 70%를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워터게이트라면<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워싱턴의 관광명소의 하나가 되었지만 이 고급아파트·블록 건설 배후에 바티칸이 있었으리라고는 아마 닉슨 대통령도 몰랐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3대은행<벤커 코메르시아레·이탈리아나>, <크레디트·이탈리아노>및 <반코·디·로마>등도 바티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보험회사도 예외는 아니다. 또 바티칸은 스위스은행의 無記名 구좌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 은행은 스톡·브로커의 업무도 하고있어, 은행 자신의 명의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므로, 바티칸이 외국 회사를 매수할 경우등에 편리할 것이다.

스위스의 은행도 바티칸에 <가톨릭·머니>를 맡거나 아랍 여러나라의<이슬람·머니>를 맡는등 대단히 바쁠것이지만, 두 자금은 미국등지의 주식시장에 상당히 흘러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면 바티칸의 투자업체로서는 제너럴·모터즈, 제너럴·일렉트릭, 쉘 석유, 걸프 석유, 베들레헴·스틸, IBM, TWA항공등을 꼽을수 있다.

■바웬사위원장과의 회견

현재 폴란드를 무대로 동서 양진영의 긴박한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정세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막후무대인 바티칸에서는 요한·바오로 2세가 조국 폴란드에서<시대적 영웅>으로 부상한 自由勞組<連帶>의 바웬사 위원장과 회견했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아마 바티칸이 그 독자적인 외교 루트를 통해 얻은 크렘린 정보를 전해줌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현재의 소련 군사개입을 둘러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가 하는 지혜를 어드바이스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옛날 폴란드가 왕국이었을 때, 국왕은 세습제가 아니라, 그때 그때 귀족집단에 의해 선출되었는데, 그러고 보니 어김없이 권력투쟁이 벌어져, 국왕의 죽음에서 후계자 선출까지에<긴 공백기간>이 생기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이러한 공백을 메워준것이 대주교였으며, 그동안 대주교는 국왕과 마찬가지 권력을 행사할수 있었다. 폴란드의 勞·政대결에서 기에레크수상의 실각을 둘러싼 정치공백을 누가 메웠느냐 하면, 그것은 비신스키대주교였다.

79년 經常支出 年4백55억원, 赤字 1백19억원
GM 셸·걸프에 投資, 워터게이트株式 70%

현대의 폴란드에서도 정치위기때는 가톨릭교회가 편치히터로서 개입하는 전통이 남아있으며, 유효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의 폴란드는 요한·바오로2세라는 막강한 배경도 가지고 있어<프라하의 봄>때와는 사정이 다른 것이다.

로마교황이 폴란드문제에관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알수없지만, 이 문제를 『만약 교황이 폴란드 출신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하는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분명한 대답이 나올수 있을 것같다.

■예언된 교황들

그런 의미에서도 요한·바오로 2세는 가능한 한 장수하길 빌고 싶다. 바티칸에 전해오는 <역대 교황에 관한 예언집>에 의하면 요한·바오로 2세의 운세는 <태양의 활동>이라고 나와 있다.

즉위한 지 불과 26일 만에 갑자기 서거한 전임자인 요한·바오로 1세의 경우, 운세가 <달의 반복>이라고 나와 있어, 뜻은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단명하다는 점에서는 맞은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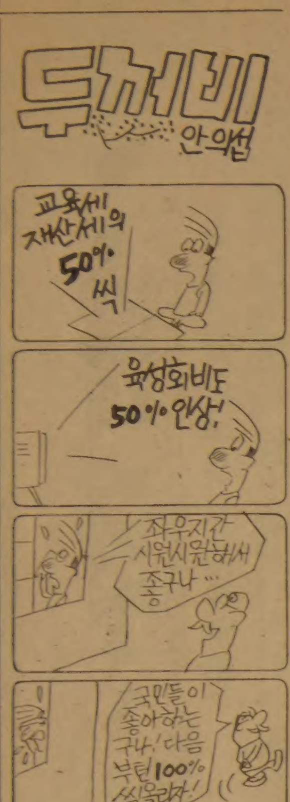
이 예언집은 12세기의 아일랜드 주교 聖말라시 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전부 1백11명의 교황의 운세를 예언하고 있다.

요한·바오로 1세 이전에도 <여행을 하는 使徒>란 운세가 나온 비오 6세(재위 1774~1800)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각지를 돌아다니게 되었고 그 후계자인 비오 7세(1800~1823)의 경우도 운세가 <유괴하는 독수리>였는데 독수리를 家紋으로 한 나폴레옹에게 몹시 시달림을 받은 등 곧잘 예언이 들어맞은 탓인지 바티칸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예언집의 백미는 서기 33년에 聖베드로로부터 시작된 <교황의 시대>가 현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다음 다음 교황에서 종결된다는 예언이다. 이 다음 교황의 운세는 <올리브 나무의 영광> 이므로 올리브나무가 상징하는 평화를 가져올 교황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교황으로서, 예언자 聖말라시는 그 교황은 초대 교황인 성베드로와 같은 베드로란 이름을 갖게 되지만 그의 재위 중에<최후의 심판>이 내려<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적고 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운명의 날>이 올 가능성이 있는 셈인데, 세계의 종말이 어떤 형태로 찾아올 것인지는 하느님만이 알 일이다.

초강대국간의 전면 핵전쟁에 의한 멸망이란 세계의 종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평화유지를 위한<감추어진 안전 밸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바티칸인 것이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短篇小說 릴레이
사랑實習
李殷執 作
李友範 畵

“이젠 우린 끝장이야, 변심한 이유 알기전엔 못물러서”

『자기랑 처음 만난 것이 신입생 미팅 때였으니까 벌써 4년이나 지났군! 그 동안 즐거웠어.』

안개꽃 같은 하얀 거품이 솟구치는 사이다를 마시고 나더니, 혜리는 마치 그 거품이라도 뿜어내듯 가볍게 웃음을 끄집어냈다.

『즐거웠다니…?』

효준은 얼른 감을 잡지 못하고 어렵게 애매한 질문을 했다.

『아이! 자긴 내 말을 영 못알아 듣는 것 같애! 지난 날 우리들의 사랑은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잔 말이야!』

『뭐라구?』

그의 음성이 높아갈수록,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잔잔한 미소까지 날리며 속삭여 왔다.

『그래야 먼 훗날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가 될게 아냐?』

『혜리! 갑자기 그 따위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뭐지?』

『갑자기라니…?』

『그렇잖아? 지난 주 토요일만 해도…. 캠핑까지 갔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효준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탁자 위에 놓인 그의 사이다 잔만 노려보고 있었다. 아직도 그 안개꽃 같은 거품은 계속해서 표면에까지 떠올랐다가는 공기 중에 부딪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의 분노는 점점 크게 부풀어 갈 뿐이었다.

『어쩜, 그리 사람이 촌스러워?』

『뭐? 촌스러워?…』

『그렇잖구! 한창 시절엔 누구에나 있는 한때의 불장난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니 말이야.』

『불장난?』

『좀 신파조 같은 얘기지만 첫사랑은 불장난이라고들 하잖아? 그렇다면 자기와 나도 그런 관계지 뭐! 안 그래?』

혜리는 미리 준비라도 해온 듯 요리조리 말을 잘도 꾸며댔다. 효준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좋아! 우린 이제 끝장이야.』

『어, 혜리가 갑자기 변심한 이유를 알기 전에는 물러설 수가 없단 말이야!』

효준이 버럭 화를 내자, 그제야 그녀가 고백을 했다.

『나 이번 방학에 약혼해.』

『그래서…?』

그는 의외로 침착하게 물었다.

『뭐가 그래서야?』

혜리가 오히려 당황했다.

『축하의 전보를 띄울 거니까 안심해!』

효준은 정말로 자신이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작년에 법과를 졸업하고 고시에 합격해서, 지금은 연수원에 들어가 있대. 실은 나보다도 우리 아빠한테 좋은 점수를 딴 친구야.』

『…!』

『하지만 나 역시 좋아지고 있어.』

『……?』

『연애를 할 땐 사랑이 필요하지만 결혼엔 조건이 더욱 중요하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차츰 그럴싸하게 여겨지거든!』

『……』

『자! 그럼, 이만 안녕! 효준!』

드디어 혜리는 작별의 악수를 청해 왔다. 그러면서 그녀는 최후의 다짐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와 나랑 친구로서의 우정은 변함 없는 거야.』

『물론!』

효준도 자신있는 목소리로 맞장구쳤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진 뒤에 그에게 남은 일이란 절망 뿐이었다.

효준은 다방을 나섰다.

『저….』

이때 등뒤에서 웬 여자의 목소리가 좇아왔다. 그러나 효준은 걸음을 빨리 했다. 혜리를 제외하고 그를 불러 줄 여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비정하시군요.』

『뭐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는 그에게 여자가 다가와 말했다.

『그렇잖아요! 금방 절망에 빠지구요, 아니, 그 절망으로부터 무조건 회피하려고만 하니, 그게 비겁한 일이 아니고 뭐예요?』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효준은 하도 기가 막혀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방금 저 다방 뒷좌석에 앉았었죠. 그 바람에 두 분의 이야기를 다 엿듣게 된 거죠.』

『기가 막혀서…!』

『더구나 전 작가 지망생이거든요.』

『흥! 그래서 나를 소재로 무슨 소설이라도 쓰고 싶은 겁니까?』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좌우간 시간 좀 빌리고 싶은데요.』

『지금 내 기분으론 사절합니다!』

『이렇게 시시한 남자니까 실연을 당했지!』

그 여자는 당돌하게도 이런 야유를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퍼부어 댔다.

『뭐야? 초면에 누구한테 반말이야?』

『반말은 지금 자기도 했어!』

『아가씨가 먼저 했잖아?』

『서로 말 좀 트면 어때? 나도 알고 보면 그다지 질 나쁜 인간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구!』

이쯤 되면 싸움이 벌어지거나 다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효준의 기분은 가벼워졌다.

『이봐! 아가씨! 길에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아예 본격적으로 타이틀매치를 벌이도록 하지?』

하여, 거꾸로 효준 쪽에서 그녀를 회유했다.

『좋아! 저기, 생맥주 시음장이 어때?』

그녀 역시 당장에 찬성을 했다.

『역시 작가 지망생이라 다르시군!』

두 사람은 바로 근처에 위치한 생맥주집으로 향했다. 아직 술판을 벌이기엔 이른 시간인 탓인지, 홀 안은 거의 텅텅 비어 있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기엔 안성마춤이었다.

『참! 인사가 늦었는데, 난 상미야! 이 상미! 그러나 친구들 사이엔 「미」자를 뺀 「이상」으로 통하지. <날개>를 쓴 <이상> 같은 작가가 되라나!』

생맥주 한 컵을 다 비우고 나서야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원효준이야! 전공은 상미가 실망한 것 같아서 생략하겠어.』

『실망? 그거 좋지! 실망은 희망의 아버지가 될테니까….』

『그렇담 좋았어! 체력은 국력! 내 전공은 체육과야!』

상미가 처음으로 폭소를 터뜨리며 즐거워했다. 그 바람에 효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맥주컵을 연거푸 기울였다.

『이제 그만 장소를 옮길까?』

이윽고 상미가 마지막 남은 땅콩 안주를 입안에 던져넣고 나서 제의해왔다.

『어디로?』

『디스코가 추고 싶어졌어.』

『디스코 잘못 추다가는 디스크에 걸린다는데….』

『걱정 말아. 체육과인 자기만큼은 못추겠지만, 그래도 B학점 수준은 되니까….』

작가지망생 자처하는 아가씨와 디스코클럽 갔는데…

『알았어! 그 말뜻…. 디스코의 천재라 이거지?』

두 사람은 어느 새 다정한 연인들처럼 팔짱을 낀 채 디스코 클럽을 찾아갔다. 이제 겨우 초저녁인데도, 벌써 홀 안엔 젊은이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칼날같은 불줄기가 서로 부딪쳤다가는 순식간에 꺾여버리는가 하면, 동시에 고막을 찢는 강렬한 리듬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수라장 속을 효준과 상미는 용감하게 헤쳐 어 갔다. 남녀의 성 구별이 곤란한 장발, 젖가슴이 다 내보이도록 실크 남방의 윗 단추를 서너 개 씩이나 열어놓은 모습, 삼각팬티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꽉 죄는 백바지를 입은, 얼핏 불량스러워 보이는 젊은이들, 짧은 커트 머리에 아한 그림이 찍힌 T셔츠를 걸치고 청바지 차림을 한 여자 애들이 서로 파트너를 바꾸며 어지럽게 돌아갔다. 둘이는 마치 술래잡기라도 하듯 이리저리 헤매며 다녔다.

이윽고 휴식을 위한 느린 템포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제야 효준과 상미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이번엔 내가 사지!』

『아냐, 오늘은 상미한테 맡겨줘.』

그녀는 맥주 3병과 안주를 청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무슨 시합이라도 하듯이 다투어 맥주를 마셔댔다.

『자! 이제 그만 우리 사랑의 실습을 하러 갈까?』

이윽고 상미가 반쯤 남은 그녀의 맥주컵을 단숨에 비워 버리고 나서 전해왔다. 이제 홀안은 마치 컬러TV의 쇼 프로 조명처럼 현란한 색깔로 바뀌고, 요즘 한창 유행인 요란한 음악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뭐라구?』

효준은 두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쳐 물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말에 놀라서가 아니었다. 무슨 소린지 얼른 알아듣지를 못했던 때문이었다.

『자기랑 내가 만난지 벌써 네 시간이 다 됐잖아?』

『그래서?』

『아유! 형광등!』

『……!』

그제야 상미의 말뜻을 깨닫고, 그가 대꾸를 못하자

『얼른 일어서라구! 내가 앞장을 서 줄 테니까….』

그녀는 팔목에 감긴 전자 시계의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효준은 자신도 모르게 끌려 매인 인형처럼 상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만 계속할 뿐이었다.

이윽고 여관의 간판들이 밀집한 골목길에 접어들어서야 입을 열었다.

『설마, 자기, 무궁화파는아니겠지?』

『무궁화라니…?』

의아하여 묻는 그에게 상미가 한심하다는 투로 힐난해 왔다.

『어쩜 무궁화도 몰라? 관광호텔에 붙은 무궁화 말야!』

『아! 그것….』

그제야 깨닫고 효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조금 미안한 얼굴이 되어 속삭여 왔다.

『이해해 줘! 오늘은 자금 사정이 이 뿐이야….』

『……』

효준이 침묵을 지키자, 상미 역시 말 없이 걸음만 내디뎠다.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여관>이란 현판 앞에 이르러서야 다시 입을 열었다.

『이런 데에 출입한 전과가 있다면 자기가 먼저 앞장을 서도 좋아.』

효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가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게 맡겨 주었음 좋겠어.』

그리고 상미는 곧장 여관으로 들어가 마치 단골손님처럼 굴었다.

『아줌마! 조용한, 아늑한 방 있죠?』

『아유! 그럼요!』

주인여자가 효준의 아래위를 훑어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보통 사람들의 사랑 실습에선 남자가 리드를 하는가 봐! 이 집 주인 아줌마의 놀라는 얼굴 보았지?』

2층의 구석방으로 안내되자, 상미가 폭소를 터뜨렸다.

『웃어야 할 사람은 나라구!』

그제야 효준도 함께 따라 웃었다. 점점 어처구니가 없어 효준이 [illegible]

『여자에게 사랑을 행사할 줄만 알고, 그 반대는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

『아직도 못알아 듣겠어?』

그러면서 그녀가 팔을 뻗쳐 그의 얼굴을 감싸안았다. 효준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아! 귀여워! 요즘 남자들은 여자보다도 더 이쁘게 생겼더라.』

상미가 그의 뺨에 입술을 비비며 조그맣게 웃었다.

효준이 눈을 뜨자, 그녀가 엉뚱한 명령을 해왔다.

『자기, 누드 좀 보여 줄수 없어? 소설에선 언제나 남자가 여자를 벗기는데 난 그 반대로 하고 싶어!』

『흥! 작가지망생이 아니랄까 봐? 상미는 지금 소설을 쓰는거야?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사랑의 실습을 하려는 거야?』

기가 막힌 효준이 그녀를 흘겨다보며 묻자,

『그건 아무렇게 생각해도 좋아!』

그리고 상미가 말을 이었다.

『…근데 모든 작가들은 소설에서 여자의 육체를 그릴 때 항상 유방을 찬미하더군! 그것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말이야! 그렇다면 남자의 육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딜까?』

『어째서?』

『생각해 봐! 아무리 요즘 여성 상위시대라지만 이건 좀 지나치잖아?』

『흥! 그렇지만 여자라고 남자의 지배만 받으란 법이 어디 있어?』

『지배라구?』

『그래! 특히 남녀가 이런 곳에 오면 으레….』

“요즘 남자들 여자보다 더 이쁘단 말야. 아이 귀여워”

『으레…?』

『남자가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난 그게 불만이란 말야! 아니,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흥! 무슨 소릴 하는 거야?』

『그보다 먼저 남자들은 깨달아야 할 일이 있다구!』

『그건 또 무슨 소리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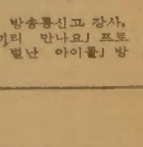
『아! 이 생명감이 넘치는 싱싱함….』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니, 다음 순간 갑자기 흐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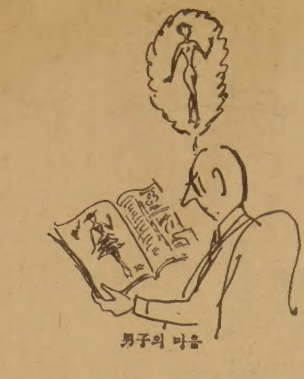
효준은 이 돌연한 사태 앞에 예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상미를 내버려 둘 수만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상미에게 다가앉았다. 그러자 상미가 갑자기 굿판의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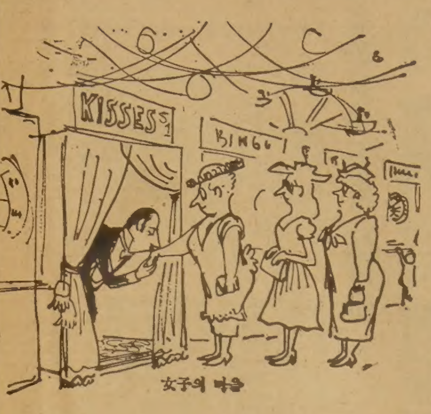
『난 가짜 여대생이야. 가짜 국문과에, 가짜 작가 지망생이란 말야! 하지만 난 행복했다구. 우린 서로 사랑했으니까…. 다방에서 만나 차도 마시고, 영화 구경도 다니고, 산에 캠핑을 가기도 하고, 해수욕장에선 함께 밤바다를 바라보며 그토록 사랑했었는데…. 저 파도처럼 되자고 했었는데…그런데 끝장이 나 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우린 사랑의 실습까지 다 마쳤는데, 어째서 실패했을까? 왜 깨어져 버리고 말았을까?…』

<作者 略歷>
▲1942년 충남 청양 출생
▲1966년 고려대 국문과 졸업
▲1971년 창작집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문단 데뷔
▲주요 저서 : 창작집 「후예」, 콩트집「반칙 연애」, 대화 에세이집 「달이 팔을 졌네요」
▲현재 서울북공고 교사, 방송통신고 강사, MBC—라디오 「우리끼리 만나요」 프로에 목요일 밤 「학창의 별난 아이들」 방송중



해외 걸작 만화


男子의 마음



女子의 마음

總交易量 7億弗…經協확대 계기

트뤼도 캐나다首相 訪韓의 意義

◇트뤼도首相

해설

트뤼도 캐나다수상의 한국방문은 63년韓·캐나다간의 國交수립 후 캐나다수상으로서는 첫訪韓이라는점에서 양국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큰 轉機가될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全斗煥 대통령이 아세안巡訪에서 새로운 太平洋시대의 개막을 강조한점으로 미루어 太平洋沿岸국가인 캐나다수상의 이번訪韓을 통해 이루어질 양국간의 頂上회담은 太平洋권연국가들간의 협력강화를 비롯한 새로운 太平洋시대의 문을여는 큰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6·25參戰國으로 우리와의 國交수립이후 유엔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적극 지지해왔고 北傀와는 그들의 끈질긴 접근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식관계를 맺지않고있는 전통적인 盟邦이다.

최근에도 지난3월 全대통령의 취임식때 마르상上院의장을 경축사절로 파견하는등 양국간의 이같은 우호관계의 友誼를 보여주었고 지난4월 徐錫俊상공장관의 캐나다방문때는 異例的으로 歡待를 베푸는등 호의를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트뤼도수상의 이번 訪韓도 바탕위에서 트뤼도수상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우리정부에 표명해와 이루어진것으로 알려지고있다.

韓·캐나다 양국은 정치·외교에서의 이러한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때 通商·經協등 실질분야에서는 사실 협력이 미흡한면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트뤼도수상의 訪韓을맞아 양국은 交易증대등 광범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할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현재 한국의 對캐나다수출은 3억4천3백만달러, 수입은 3억7천8백만달러로 총 交易量은 7억2천만달러에 이르고있다. 캐나다측은 특히 이번 트뤼도수상의 訪韓을통해 原子力분야의 협력과 항공기통신기술및 穀物등의 對韓공급확대등에 큰 관심을 나타낼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상업차관의 추가도입문제, 기계·금속·전자·화학등 분야의 투자유치, 造船분야등에서의 기술도입문제등을 요청할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측은 특히 3만여명의 캐나다주재동포에 대한 보호문제와 새로운 僑民진출확대문제등도 거론할것으로 전망된다.

全대통령이 트뤼도수상을 맞아 갖는 사실상의 頂上회담은 韓·美, 韓·아세안국가에 이어 금년들어 3번째의 頂上외교이다. 이런점에서 트뤼도수상의 訪韓은 제5공화국이후 전개되고있는 多邊的인 頂上외교의 一環으로도볼 수있다. 【政治部】

僑民진출 문제 論議될듯

얼굴 — 트뤼도 加수상

트뤼도 캐나다수상(61)은 68년이래 13년의 집권중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히고있다. 79년 진보보수당의 조·클라크에게 권좌를 넘겨줬다 9개월만에 총선에서 다시 되찾았다.

몬트리올大 법학부교수로서 노동관계 법률전문가로 지내던 65년 정계에 투신했으며 3년만에 수상이 된 행운아. 뛰어난 두뇌와 무한한 행동력으로 피어슨내각때 1년만에 법무장관에 발탁됐으며 가톨릭신자인데도 이혼법을 완화하고 낙태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등 진보적 법제정을 추진했다.

가결혼했고 이어 건전한 정치가로서의 인기를 굳혔다. 세번째의 71년 52세의 나이로 29세인 마거리트여사와 결혼했다. 캐나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퀘벡분리주의에는 연방정부의 신봉자로서 강력히 반대하며 의회보다는 수상에게 더 많은 권력을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이웃 미국에 지나친 의존을 줄이려고 줄곧 노력해왔다. 취미는 요가, 스키, 스카이다이빙, 유도등으로 운동에는 만능. 자유분방한 행동으로 세계에 화제를 모았던 마거리트여사와는 법적별거중이다. 【奕】

캐나다국민들의 그에대한 신임을 잘 대변해준다. 1919년 몬트리올에서 대부호의 아들로 태어난 트뤼도수상은 신학교를 거쳐 몬트리올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후 美하버드대학과 파리대학, 런던이코노믹스쿨에 유학했던

政界投身 3년만에 首相된幸運兒

68년4월 자유당당수로 선출됐고 2개월후 총선에서 48세라는 캐나다 최연소의 총리가 되었다. 그후 여성유권자들의 인기를 독점하던 트뤼도수상

演芸

애정 3角관계 파헤쳐

5백만원 현상 라디오 드라마 當選된 柳德씨

◇현상 라디오 드라마 장편부문에 당선된 主婦作家 柳德씨。

MBC 創立기념 라디오 드라마 장편부문에 「잊혀진 女人을 말한다」로 당선된 柳德씨(28·서울江東區 잠실4동 시범아파트90동12호)는 상금 5백만원을 내집 마련에 써야하지만 먼저 낚시도구와 등산도구 사는데 쓰고 싶다는 主婦였다.

한달사이에 1천2백매장을 썼다니 자신의 말대로 정말 혼났을거다. 당선 소식을 들은 남편 李珍行씨(34·詩人)는 『일단 수고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좀더 깊이있는 작품이었더라면…』하여 따끔한 충고를 주었다.

柳씨에게 5백만원의 상금과 보람을 함께 안겨준 작품 「잊혀진 여인을 말한다」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한 것은 아니다. 단지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수있는 소재(3각관계)가 통념 그대로 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극을 받아 꾸며본 순전한 허구의 세계다.

평탄한 신혼가정에 독일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돌아온 남편의 예애인이 등장함으로써 파문이 인다. 아내는 깊은 좌절과 충격에 괴로와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다시한번 자기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심화시켜간다는 일종의 애정극이다.

柳씨에게 결정적 힌트를 준 것은 사촌여동생의 친구였다. 몇년전 그 친구는 말 그대로 남편의 예애인때문에 괴로와하다가 결국 이혼에 까지 이르고 말았다. 여성과 대화보다 감정을 앞세운 방어라고 柳씨는 해석한다.

柳씨부부는 中央大 문예창작과 선후배사이로 7년간의 긴 연애끝에 결혼했다.

『이젠 좀 지리해요. 숨소리만 들어도 서로의 감정을 알 정도니까요.』 사실 결혼전엔 만나서 코피 마시고 음악 들으며 문학에 대해 얘기할수 있는 연인사이로 머무르고싶은 기분도 있었다. 그리고 결혼후엔 오히려 서로의 작품에 대해 얘기하는 기회가 줄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이란 삶의 괴로움과 실체에 좀더 접근하게 해 결국 성숙한 인간을 만들어 준다는 일면도 있다. 『결혼생활나름의 의미도 있어요. 대학여성들에겐 한번쯤 권해보고 싶어요.』

한달 걸려쓴 長篇「잊혀진 女人…」으로 "賞金 내집마련에 쓰겠다"는 主婦作家

출판사에서 받아오는 남편의 월급으로는 13평아파트의 살림을 꾸리기에도 파부족이었다. 결혼과 글쓰는 작업을 병행시키기에 더욱 짜증이 났었다. 결혼한걸 후회도 했고, 투정도 부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련의 과정이 없이는 운명을 심각하게 생각할수도 없고 작품을 쓸수도 없었을것 같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층 신중해졌다. 연애시절엔 『이걸 글이라고 쓰나, 때려치워』『이게 시예요』하며 지독한 모욕도 서슴지 않았지만 요즘은 적어도 아내나 남편만은 서로의 작업을 인정해 주어야한다는 생각에서 가능한 서로의 작품에 대해 선심한 비평은 삼간다.

또, 사실 결혼한 부부사이에선 生活에 관한 얘기가 주를 이룰수 밖에 없다. 이번 작품에 대해서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붙이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밖에 내놓지 않았다.

당선이 확정된 후에야 『라디오 드라마는 시청률에 얽매일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되면 좋은 작품을 쓸수 없지 않겠느냐』고 걱정해 주었다. 그래서 柳씨는 『내가 대중적 작업을 해 당신을 먹여살릴테니까 당신은 맘 편히 詩作에만 살리세요』라고 어른스런 한마디를 해주었다.

『아마 다음작품부턴 바다가 등장할 거예요. 부산에서 동래여고를 나왔거든요. 고향이란 항상 정겹고 그에 연상돼 떠오르는 바다냄새 역시 몹시 이 정겨운 거예요.』

아직은 바다를 소화할 수 없어 다루지 못하지만 앞으론 바다냄새를 배경으로한 작품이 나올거라고 조그맣게 미소짓는다.

主人公 찾습니다 金應天감독

지난12일 현충각한 영화감독 金應天씨는 신혼의 꿈도 뒤로하고 영화「내것은 마야」촬영준비에 분주하다. 이번 영화를 결혼기념작품으로 만들겠다는 金감독은 마땅한 주연 여배우를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이틴物인 이 영화의 주인공은 17~18세 또래의 여학생이어야 한다고.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본보 무료배부
— 우편파업기간중 —

해외話題

나치戰犯 헤스의 獄中 40년

87세 高齡에도 아직 健康 컬러TV보며 圖書館출입

◇루돌프·헤스

히틀러의 오랜 측근이자 나치 부총통으로 악명을 떨쳤던 루돌프·헤스가 지난5월10일로 억류생활 40주년을 맞았다.

올해로 87세가 되는 헤스는 獨逸軍이 西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해 英國人들을 침략의 두려움에 떨게했던 1941년5월10일, 단독평화사절로 스코틀랜드 지방에 나타났다.

그후 英國각지의 감옥을 전전하다 전쟁이 끝난 1946년 뉘른베르크 戰犯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西베를린의 슈판다우 형무소로 이송돼 현재까지 복역중이다.

美·英·佛·蘇등 4대 전승국 군인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는 우중충한 적색벽돌의 이 형무소에서는 6백개의 감방이 있지만 지난15년동안 헤스가 유일한 在所者였다.

2차대전의 악몽이 점차 잊혀져가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그를 석방해야한다는 호소가 늘고있지만 蘇聯은 헤스가 죄수번호 7번을 달고 죽을 때까지 복역해야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1차대전시 전선의 참호에서 만나 친구가 된 이래 히틀러의 1급참모였던 헤스는 2차대전사의 미스터리인 그의 英國비행을 감행했을 때 나치권력 서열 2위의 막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전투기를 타고 스코틀랜드의 해밀턴 공작의 사유지에 낙하했다. 해밀턴공작은 英·獨간의 휴전제안을 지지하고 헤스를 윈스턴·처칠 수상에게 안내할 생각을 가진 우익계열의 보수주의자였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의 英國비행이 獨逸軍의 소련침공 불과 6주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보아 蘇聯침공에 앞서 서부전선에서의 휴전을 시도한 것이라는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지 이틀후 베를린의 라디오방송은 정신착란에 시달리고 있는 헤스가 비행기를 탈취, 도망쳤다고 발표, 휴전제안은 독일측에 의해 먼저 파기되고 말았다. 당시 히틀러의 측근들에 따르면 헤스의 英國비행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노발대발, 갖은 욕설을 퍼부었을뿐 아니라 헤스가 그를 배반했으며 아주 미쳐버렸음에 틀림없다고 말했다는것.

한편 처음부터 헤스가 英國에 잠입했다는 얘기를 믿으려들지 않았던 처칠 수상은 헤스를 만나 휴전문제를 토의하기를 거부했다. 뿐만아니라 억류상태에서 풀어달라는 헤스의 주장을 일축, 그를 신문하도록 명령했다. 그후 헤스 자신이 공개적으로 그의 英國비행에 깔린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英國정부의 신문결과도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英國에 도착, 스코틀랜드式 막사에서 억류 첫날을 보낸 헤스는 5년동안 갖가지 억류시설을 전전, 런던의 중세의 형탑에 갇힌 최후의 人物이 되기도 했으며 수차례 정신요양소에 보내지기도 했다.

1946년10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세계평화파괴음모와 침략전쟁 도발혐의로 종신징역형을 선고받은 헤스는 이듬해 英國에서 슈판다우형무소로 이송됐다.

1966년 헤스의 감방동료인 前나치 國防相 알베르트·슈페르와 히틀러靑年團 리더 발두르·쉬라흐가 20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옥함에 따라 죄수번호 7번의 헤스만이 유일한 재소자로 남게됐다. 현재 슈판다우형무소의 연간 운영비는 1백만마르크(46만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 경비는 西獨납세자들이 부담한다.

철저한 고립속에 살고 있는 헤스에게 유일한 위안이라면 건강진단과 질병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英國軍病院을 방문하는 일이다. 4년전 헤스가 식칼로 그의 팔과 다리를 난자, 자살을 기도했을 때 응급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서방동맹국 관리들은 헤스는 90세를 눈앞에 둔 노령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고 전했다.

지난69년 엄격한 감방생활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돼 헤스의 감방에 컬러TV가 비치되고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우주여행을 비롯한 기술적 연구를 위해 도서관 이용이 폭넓게 허용됐다. 그러나 여전히 신문은 검열을 거치고 있으며 따라서 그는 西方세계에서 석방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한다.

최근 헤스의 석방운동은 헤스의 아들인 볼프·루에디게씨와 前슈판다우형무소美軍사령관 유진·버드씨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이들은 『헤스가 바이에른의 자택에서 부인 일리자와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석방해 달라』고 연합국에 호소했다.

한편 지난 2월 西베를린 駐在 蘇聯大使 피요트르·아브라시모프는 TV인터뷰에서 『헤스의 석방은 파시즘에 대한 赦免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강조했다.

따라서 헤스는 수년전 마련된 평범한 목제관에 실려 나갈 것으로 보이며 그의 英國비행에 얽힌 비밀 역시 그와 함께 땅속에 묻힐것 같다.

前滿洲國 황제 溥儀의 마지막 사랑

59년12월 中共抑留서 풀려나…세번 結婚

李淑賢여인 만나고부터 사랑의幸福 알아

◇僞滿洲國황제로 있던 시절의 젊은 溥儀Ⓣ와 中共치하에서 억류생활끝에 풀려나와 일기를 쓰기도 했던 老年의 모습Ⓑ。

중국淸朝 최후의 황제이며 일본이 세운 괴뢰「滿洲國」황제였던 愛新覺羅溥儀의 마지막 8년간의 생활 모습을 그린「그후의 皇帝」라는 책이 근간 중공 天津의 출판사에서 간행되리라고 한다.

溥儀는 써서 남긴 일기와 메모, 아직도 건재한 李淑賢미망인의 회상등을 바탕으로 사학자 王慶祥(吉林省社會科學院歷史硏究所소원)이 평민이 된 황제의 모습을 재현한 것.

그 가운데의 하이라이트가 될만한 부분을 소개해보면—.

<황제는 갑자기 나의 손을 쥐고 힘을 주며 두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언제 결혼해주겠어?』

『좀더 시간을 주세요.』

『왜 그래. 빨리 승낙을 해주어야겠어.』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되세요?』

『조금은 그렇지. 당신이 좋아 못견디겠으니 나를 떠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니까 그렇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무가 말라죽고 돌이 가루가 되더라도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거예요.』

이 말에 「황제」는 뛸듯이 기뻐했다고 한다.>

미망인의 사랑의 클라이맥스의 회상인것이다.

溥儀가 특사로 戰犯수용소에서 풀려난것은 1959년 12월이었고 그후 文書資料연구실의 전문위원이 되었다. 월급은 1백元이었다.

61년 어느날 毛澤東은 中南海의 자기집으로 溥儀를 초대하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재혼을 권했다고 한다.

溥儀는 그때까지 3번 결혼했지만 溥儀자신이 일기에 쓰고 있는 것으로는 李淑賢여인을 만날때까지는 「애정이 무엇인가를 몰랐다」고한다.

62년4월에 결혼하게 되는 李여인과 처음 만난 것은 그해 1월이었다. 동료들의 소개였던 것이다.

李여인은 당시 37세의 간호원으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무척 쓰라린 인생의 길을 걸어온 여자였다.

맞선을 볼때 溥儀는 李여인에게 연거푸 일에 관한것, 가정에 관한 일을 묻고는 또 자신의 생활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서로 마음에 들어 그후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데이트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언제 결혼해 주겠어』라는데까지 두 사람의 사랑은 발전했다고 한다. 당시 溥儀의 나이는 56세였다.

결혼식은 4월30일 밤7시 생활문화클럽이라는 곳에서 친지등 2백명 가까이가 출석하여 거행되었다.

溥儀는 『나의 前半生은 착취와 寄生의 생활이고 수치스러운 인간이었읍니다. 10년의 개조를 거쳐 여기에 일하는 자의 일가를 갖추게 되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찾던 행복입니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한다.

溥儀는 戰犯수용소를 나와 67년 암으로 죽을 때까지의 8년간의 생활을 28권의 일기와 수많은 메모로 써서 남겨 놓았다.

그러나 文化대혁명의 혼란통에 흩어져 현재 미망인의 수중에 남아 있는 것은 일기 13권과 일부의 메모 뿐이라고 한다.

또 「나의 半生」을 쓰기 위해 수집되었던 자료도 지금은 거의 행방불명이라고 한다.

溥儀 자신의 口述녹음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도 역시 文化대혁명의 소란에 휘말려 대부분 없어졌다. 남은 「溥儀日記」는 吉林省社會科學院발행의 잡지인 「社會科學戰線」에 현재 연재중이라고 한다.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 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텍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월~토 9 : 30AM~6 : 00PM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11AM~7PM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써엄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Spadina코너)
☎ : 977-3142
닭, 요리, 돼지, 바베큐신설.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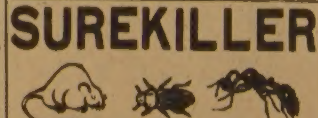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서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Eglinton Keele Bayview CHINA HOUSE Bathurst Bloor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SUREKILLER

바퀴벌레, 개미, 벼룩, 좀벌레등 각종벌레.
Powder or Spray적은비용, 사용간편. 사전예방용. 100% 효과보장.
각 한국식품 판매처 또는 Ont. 전역 공급 Retail store경영하시는분 주문 배수.
☎ : 255-6849, 255-0713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私立大·專門大에 8百億 금융支援

李文敎 定員증원따른 敎育시설 不足덜게

문교부는 입학정원의 대폭증원으로 심각한 교육시설부족난을 겪고있는 사립대학및전문대학에 약 8백여억원의 금융지원을하기로결정, 사학재단으로부터곧자금지원배정신청을 받기로했다.

"관리資質向上위해 곧대폭人事단행"

李奎浩문교부장관은 29일 사학재단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새학기부터 내년상반기사이에 8백억원의 장기저리지원금융을 배정키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금액의 절반인 4백억원은 오는 새학기중에, 나머지 4백억원은 82·83학년도 중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사학지원금융은 반드시 교육시설확충에만 써야한다고 지적하고 융자조건은 5년거치10년이내상환토록하고지원금융의이자중50%는정부가부담하게되는것이어서정부로서는 사학에대한 파격적인지원이라고강조했다.

李장관은 또 문교관리의자질향상을 위해 『곧 문교부고급관리에대한 대폭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번인사와 관련, 본부局長중 2명을 학위를 소지한 현직교수로 경질하고 중앙교육연구원에도 2명의 현직교수를 전임으로발령할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학원문제에도 언급, 『우선 대학인들이 자유를 책임있게 누릴수있을만큼 교권을 세우고 질서를지키는 일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

또 李장관은 「7.30교육정상화방안」으로 시작된 지난 1년간의 교육혁신작업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교육혁신의 2차목표는 실업고와 전문대학등 직업교육부문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작업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韓日議員聯 총회 9월16일 서울서

【東京28日AP=聯合】韓日의원연맹 일본측 의원들은 28일 오는 9월 16~17양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敎育稅징수 修正불가피

9월定期국회서 論難예상

民正、내주財務委소집 구상

民韓 1일·국민 30일 對策회의

정부가 마련한 敎育稅法기본방향에대해 民正黨이 징수시기와 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보고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신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운데대해 民韓,국민당은 원칙적으로 교육세新設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오는 9월정기국회에서 敎育稅法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民正黨은 敎育稅 신설에따른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기위해 빠르면 來週에 국회財務委소집을 구상하고 있는반면 民韓黨은 오는8월1일 정책위산하 財務·文公委 연석회의를 열어 이에대한 대책을 숙의하며 국민당은 30일 黨간부회의를 소집, 代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民正黨】李珍雨 民正黨 정책위의장은 29일 『재무부가 그동안 갖가지 案을 검토,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案을 채택한것으로 알고있지만 民正黨은 정부측발표를 그대로 지지하는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財産稅에 50%씩을 부가하는것은 저소득층에게도 부담을 가중시키기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 差等制를 실시하는등의 방법도 검토될수있다』면서 보완책을 강구할 뜻을 비쳤다.

또 李鍾贊총무도『酒稅와담배값에 부가하는것은 異論의여지가 없겠지만 재산세에부가하는것은 뭐라고말하기 곤란하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여론을 최대한 반영시키는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측의 교육세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곧바로 財務委를 소집, 공청회나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의사가 수렴되도록할것이라고 말했다.

【民韓黨】오는 8월1일 상오9시 중앙당사에서 韓英洙정책심의회의장주재로 정책심의회산하 재무·문공위연석회의를열고 敎育稅신설에대한 黨의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韓정책의장은 29일『에너지 파동과 不況으로 아직도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져있는데 교육세를 신설하는것은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며 원칙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산업화 시책에만치중, 교육투자를 멀리하다보니 교육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되자 당황, 가장 쉬운 치유책인 敎育稅라는 目的稅를 신설하려고 하고있다』고 비난하고 『새로운 稅의 신설보다는 그동안 투자배분에서 소홀했던 교육투자에 力點을 두는 투자조정을 1차적으로하는 정부의 성의표시가 먼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세를 기업에 부과하지않고 일부 대도시 지역에 재산세의 50%를 균등부가하는것은 課稅의 보편성을 상실한 졸속稅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측 제안대로 교육세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9월정기국회에서 상당한 마찰이 뒤따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재무위의 金承穆 民韓黨측간사는 『6大都市의재산세에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50%를부가하는것은납득할수 없으며교육세신설보다는조세감면폭을 줄여 교육재정을충당하든지 불요불급한 정부재정수요를 줄여 그財源을 교육재정으로 轉用하는것이 타당하다』고말했다.

한편 高在淸총무는 民正黨의 財務委 소집제의에 『교육세는 黨論이 확정된후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도 늦지않기 때문에 그 이전의 재무위 소집에 응할 생각이없다』고 말했다.

【국민당】교육세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교육세문제에 대한 代案을 마련키위해 30일 총재단, 원내총무단, 정책위의장단, 정책위 경제분과위원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

李萬燮총재는 『극심한불황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능력이 한계점에 달해 있는데도 재산세에서 50%씩 더징수한다는것은 납득할수없다』면서 『정부는 不要不急한 예산을 절감하고 조세의 감면폭을 대폭줄여 교육투자로 전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全대통령「國際團合賞」수상자로 選定

◇全대통령

印 國民團合회의

[illegible] 지역 國際團合賞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민단합과 국제적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지난71년 창설된「印度국민단합회의」는 全斗煥대통령을 수상자로결정한것은 全대통령이 80년 9월이후 국내안정과 경제발전을 공고히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했기 때문이라고 [illegible]

이 기구는 카터前 미국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소련共産黨서기장을 「1980년의人物」(국제이해부문)으로 선정했고 헬무트·슈미트西獨수상에게도 유럽지역국제단합상을 수여했다. 이기구는 印度 國院의원과 저명인사 그리고 언론인들로 구성되어있는 민간단체로서 [illegible]

"全대통령 6·5提議건설적"

케네디議員、議會에 記錄보관 요청

【워싱턴28日=聯合】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위한 중요한 일단계방안으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한 직접대화를 시작해야한다고 에드워드·케네디상원의원(民·매사추세츠)이 말했다.

케네디상원의원은 이날 6·25동란 休戰28주년을 맞아 상원본회의연설에서 언제어디서라도 金日成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한 全斗煥대통령의 6·5제의가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건설적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케네디의원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한국민들의 [illegible] 다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목표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하는 가치있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이 남·북한의 동의하에 평화적으로 모색돼야하며 한쪽의 제도를 다른쪽에 강요하는 식의 방법은 지양돼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全대통령의 6·5제의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지난6월5일 평화통일자문회의의 발족식 석상에서 행한 全대통령의 연설全文을 美의회기록에 보관해 주도록 요청했다.

찰즈皇太子 결혼에 全대통령, 祝電보내

全斗煥대통령은 29일 英國 찰즈황태자의 결혼식에 즈음하여 엘리자베드2世 女王에게 축전을 보냈다.

全대통령은 이축전에서『본인내외는 오늘 찰즈 황태자와 아울러 여왕폐하및 신랑、신부께 진심으로 축의를 표함과아울러 새로맺어진 부부와 皇室의앞날에 성공과번영이 깃들이기를 기원한다』고밝혔다.

原子爐·터빈등 全分野 제작

韓國重工業 發電設備부문 美웨스팅하우스社와 合作

커비會長 3~4개월內에 契約체결

【피츠버그29日=本社經濟部】정부의 重化學投資 조정에따라 韓國重工業에 일원화된 發電設備부문은 美國의 웨스팅하우스社와 合作투자사업으로 개편될것같다.

R·E·커비 웨스팅하우스會長은 29일상오(한국시간) 피츠버그의 웨스팅하우스本社에서 이처럼밝히고 웨스팅하우스社는 한국정부및 한국중공업당국과 發電設備부문의 合作투자문제를 협의중에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3~4개월이내에 모든 합의가이루어져 합작투자 계약이 체결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커비會長은 合作투자사업 내용에대해 원자로,터빈 제너레이터등 발전설비의 모든 분야를 제작할수있는 시설을 갖추게 될것이라고 설명하면서 原子力,水力발전소등 모든 발전설비를 제작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投資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重工業 昌原공장은 이미 10억달러내외가 투자되어있고 경제단위의 대형공장으로 건설하게될 에 비추어 大型합작사업이 될것같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韓美양국이 각각 5억달러씩투자할것으로 알려졌다.

커비會長은 또 한국의 발전설비 國産化계획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대해 그것은 合作회사가 얼마나 많은 발전소를건설하느냐에달려있다고 전제하고 통상적인경우 10~12년이면완전國産化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커비會長은 웨스팅하우스社가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는 30~40년의 수명을 갖게되나 준공후 1년간만 성능을 보장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이후의 고장이나 수명이 다했을때의 폐기문제등은 모두 소유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拉北태창號 곧釋放

北傀발표 작년12월 끌려가…선원17명

【東京28日AP=聯】북괴는28일 서해해상에서 지난해12월2일 나포한 제2태창호를 [illegible]

東京에서 청취된 북괴관영 中央방송은 이날 북괴당국이 濟州港을 모항으로한 제2태창호가 [illegible] 영해수역에 들어왔음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북괴가 아무런 [illegible] 덧붙였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 2361

바니·사드르 파리에 亡命

◇사드르前이란 大統領

【파리29日AP=聯合】아볼하산·바니사드르 전이란대통령(48)이 29일 새벽 이란항공기편으로 파리서부 교외의 에브뢰 공군기지에 도착, 프랑스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으며 프랑스정부는 바니사드르가 프랑스에서 정치활동을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다고 프랑스외무성이 공식발표했다.

프랑스외무성 발표는 이날 파리주재 이란대리대사를 외무성으로불러 프랑스정부의 이와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바니사드르가 타고온 항공기는 이란정부에 돌려줄 것이라고말했다.

이여객기는 바니사드르를 프랑스로 탈출시키기위해 납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으나 아직 확인되지않고 있다.

한편 프랑스국방성은 이란군 보잉707기가 이날새벽 4시23분 (한국시간 상오11시23분)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으며 에브뢰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이란 케르만省에 強震

주민 4~5千명 死亡

【알카라29日AP=聯合】이란 남동부 케르만省지방에 강도 6·5~7의 強震이 엄습, 4천~5천여명이 죽은것 같다고 케르만성지사가 29일밝혔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케르만성지사인 압홀호세인·사베장군이 이란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양국경에접한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4백㎞떨어진 케르만省都인 케르만市지역에 의료진 50여명을 급파했다고 보도했다.

파르스통신은 지진이 있은지 12시간이 지난후 40여명의 시체가 발굴되고 잔해속에서 4백여명 이상의 부상자를 구출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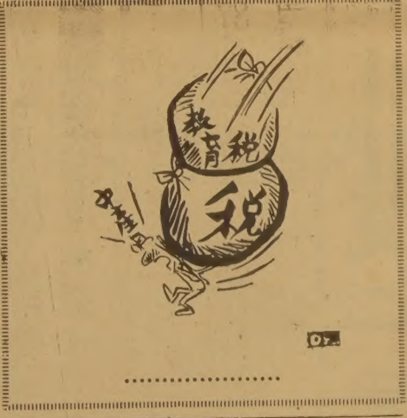
이통신은 지진지역은 험준한산으로 둘러싸여져있고 도로가 파괴되어 구조작업이지연되고 있는데 이지역의 90%가 파괴되었다고 전했다.

蘇억류漁船영기號 日本통해送還교섭

外務部밝혀

외무부는 東海의 大和堆어장에서 조업을하다 지난23일 실종된 오징어잡이선 제801영기호가 蘇聯당국에억류된사실이 나호드카駐在日本총영사관을통해 공식확인돼 송환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社會漫評



地平線

우리생애 최고의해、로마의휴일、벤허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잘알려진 윌리엄·와일러감독이 별세했다(79세)。무거운 유럽영화와는 달리 담담한 성품、경쾌한 템포로 조용히 명장면을 펼쳐가던 와일러만큼 우리의마음을 사로잡던 영화감독은 드물다。▼우리생애최고의해는전승국미국의전후를 그린 걸작이다。세명의 귀환병이같이탄 한대의 군용기가 한적한시골에 내리는데서 이영화는 시작된다。멜리육군대위、스틴븐슨상사、호머수병등 세GI는 모두 사회에돌아오면 신분도틀리고 생활도 다르다。거친 전쟁터에서 평화로운사회생활에 다시 익숙해질때까지를 차분하면서도 정답게그린 이영화는 와일러감독에 오스카상을 안겨준작품이다。▼멜리는 전쟁에나가기 20일전에 결혼한아내가 기다리다못해 술집에나와 일하는것을알게된다。호머의애인은 그가내민 義手를보고놀라、울어버리지만 굳세게마음을잡고따뜻하게그를 맞는다。은행가로 돌아간 스틴븐슨상사는 미모의 아내와 행복한가정을 다시꾸민다。인생최고의 해를 전쟁으로보낸 그들이지만 쓰라린가슴을 서로 어루만져주면서 주변의 따뜻한 눈길속에 제2의인생을 다시찾는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다。▼좋은 영화를 보았을때 느낀감동은 일생잊혀지지않는데 와일러감독은 팬들의마음을 움켜잡고 안놓아준다。그는우리생애최고의해(46년)말고도 벤허 (60년)으로오스카상을 세번이나 차지했다。벤허、폭풍의언덕、화니·걸등 숱한 명작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거장 와일러감독은 잘알려져있으나 청순한 오드리·헵번이 단발머리로 출연한 로마의휴일을 몇번씩본 팬들도 많을게다。▼얄팍한 가슴의 왕녀 앤이 로마 여행중에 소녀의꿈에실려 궁전밖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은 우리들에게 꿈과 낭만을 보여준 명작이기도하다。미국신문기자(그레고리·펙)와 우연히만나 하룻밤의 모험과 자유분방을 즐기는 헵번、일생에 단한번 인간다운 자유를찾는 왕녀가 제정신을 찾아 담담히 헤어지는 장면은 와일러 감독의 따뜻한 인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남는다。▼프랑스에서 태어나 18살에 미국에 건너온 와일러는2차대전에종군、왼쪽귀에 부상을입었고작품많기로유명했다。그는열중하는날 자신의 영화를 모두모은 회고감상회에서 돌아와 조용히눈을 감았다니 그의성품 그대로 인생의 막을내린 셈이다。우리에게 인생이 뭣인가를 보여주던 명감독이 조용히 사라진 것이다。

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파업기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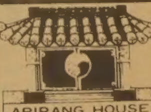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5
은 : 온스당 US 8.51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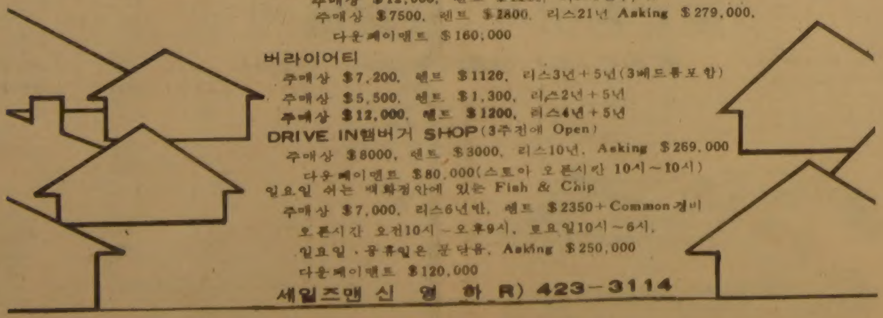
주간女性

스타☆미용실
파마 스페샬 세일: $28.00
(기간 : 7월말까지)
예약 : 741-4410
시간 : 아침9시~오후8시
휴업 : 매주 일, 월요일
주소 : 2437 FINCH AVE.
WESTON, ONT.
(Finch & Weston)

Hair Stylist—Keo Kim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샾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먼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먼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먼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토론토시

심코데이(월) 1981년8월3일
쓰레기 수거 변경일

수거일 (화) 8월4일, 1981
(수) 8월5일, 1981

신문지및 부피있는 물품은 8월5일(수)에는 수거치 않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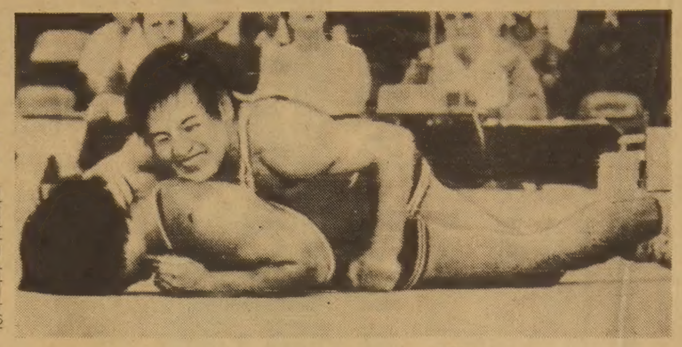
8월12일(수)까지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토론토에는 19군데의 병과 쇠붙이 등을 재생시키는 장소가 있읍니다. 더 이상의 사항을 아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전화 : 367-7742로 문의 바랍니다.

R. M. BREMNER
P. Eng., F.I.C.E.
건설국장

레슬링 金鍾奎도 銅

한국、銀1 銅4개로 20位 올라



◇渾身의 힘으로 레슬링 자유형 플라이급(52㎏) 3、4위전에서 한국의 金鍾奎(위)가 캐나다의 레이·다까하시와 열전을 벌이고있다. 金은 판정승을 거두어 銅메달을 차지했다. 【부쿠레슈티28日UPI=聯合】

남자排球 日本이겨야 銅
농구는 中共에 극적 逆轉勝

夏季 유니버시아드

【부쿠레슈티=楊森特파원】 한국은 29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벌어진 제11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10일째 남자배구 결승 리그에서 홈코트의 루마니아에 3-0으로 패해 결승리그서 2패(예선쿠바대전서의 1패포함)를 기록, 3、4위전으로 밀려났다. 한국은 29일밤 10시30분 日本과 3、4위전을 벌인다. 한편 레슬링 자유형 플라이급(52㎏) 3、4위전에서 한국의 金鍾奎는 캐나다의 레이·다까하시를 판정으로 누루고 銅메달을 차지했으며, 웰터급(74㎏)의 高鎭源은 유고의 리스토·키로에 판정패, 4위로 떨어졌다.

◇金鍾奎선수

한국남자 농구팀은 라이벌 中共과 접전끝에 71-70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9、10위 결정전에 진출, 핀란드와 대결케 되었다.

한국은 이날 현재 은메달 1、동메달 4개를 차지하여 메달 레이스서 20위를 마크하고있다.

한국 남자배구팀은 주최국 루마니아와의 결승리그 첫경기서 심판이 루마니아편을 드는바람에 리듬을 잃고패했다. 한국은 첫세트서 姜斗泰·張允昌의 좌우강타와 文湧冠·柳重卓의 속공으로 선전했으나 루마니아의 장신블로킹에 막혀 15-10으로 내줬다. 제2세트들어 세터 金浩哲이 루마니아의수비를 따돌리며 張允昌에게 오픈공격을 시키고 이동속공을 구사, 7-2로 리드하여 역전의 기회를 잡았으나 이때부터 이탈리아주심이 루마니아를 감싸고도는 판정을내려 15-12로 역전패했으며 마지막 3세트서도 15-5로 주저앉았다.

◇제10일전적

◆남자배구결승리그

루마니아 3 (15-5, 15-12, 15-10) 0 한국 (2승) (2패)

쿠바 3 (16-14, 15-10, 11-15, 13-15, 15-9) 2 일본 (2승) (2패)

◆남자농구

한국 71 (33-30, 38-40) 70 중공

◆레슬링

▲자유형플라이급3·4위전 金鍾奎 판정 레이·다까하시

▲자유형웰터급3·4위전 리스토·키로 판정 高鎭源 (유고)

◆펜싱 에페 남자단체 ▲D조 미국 12-4 한국 헝가리 13-3 한국

美AIA농구팀 信託은행 75대50 大破 緖戰장식

【麗水=聯合】 美國선교여자대학팀(AIA) 초청 韓·美친선농구1차전에서 美國은 서울信託銀行을 75-50으로 대파했다.

서울信託銀은 골게터 金顚蓮이 발목부상으로 제컨디션을 발휘치못한데다 美國선교여자대학의 데이비·헌터, 엔젤러의 중거리슛 폭발과 장신을 이용한 리바운드독점으로 고전했다.

◇1차전적

미국 75 (34-18, 41-32) 50 서울신탁

리틀野球 極東예선 8월1일 臺北개최

【臺北28日CNA=聯合】 81년도 세계리틀·리그 야구선수권대회 극동지역예선경기가 한국 自由中國 日本 괌島 홍콩 인도네시아등 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8월1일부터 6일까지 臺北에서 개최된다고 대회조직위원회가 28일밝혔다.

崔忠日2·金泰式7 WBC 7월랭킹

【멕시코시티28日AP=聯合】 세계권투평의회(WBC)는 28일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金喆鎬선수등 10명의 한국선수가 포함된 WBC 15체급의 7월랭킹을 발표했다. 崔忠日은 2위, 金泰式은 7위에 올라있다. WBC는 멕시코의 밴텀급세계챔피언 파탈루페·핀토르를 「이달의 복서」로 선정했다.

黃善愛 세계頂上 놓쳐

中共 張愛玲에 3세트고비 못넘겨

월드게임 배드민턴

【산타클라라=聯合】 黃善愛는 29일상오 이곳 시빅·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1회월드게임 5일째 배드민턴여자단식 결승에서 中共의 張愛玲에게 2-1로 패배, 銀메달에 머물렀다.

黃善愛는 지난5월 국제배드민턴연맹(IBF)과 中共이 주도해온 세계배드민턴연맹(WBF)통합이후 명실상부한 세계제일인자를 가리는 이날 결승서 張의 노련한 경기운영에 말려 고배를 들었다.

黃은 이날 첫세트 초반 특유의 강스매싱으로 6-1까지 리드를 잡았으나 張의 반격에 쫓겨 7-7, 타이를 허용한뒤 범실로 잇달아 점수를 내줘 11-7로 세트를 선취당했다.

黃은 2세트들어 분발, 안정된 서브와 좌우대각공격으로 11-9로 이겼으나 3세트서 5차례의 역전을펼치는 접전끝에 12-9로 분패했다.

◇제5일전적

▲여자단식결승

張愛玲 2 (12-9, 9-11, 11-7) 1 黃善愛

▲동복식준결승

메리·웹스터 2 (15-10, 18-14, 8-15) 1 黃善愛·金鍊子 (중공)

野球는 濠에 10대0 大勝

한국야구팀은 29일낮 쇼·스타디움서 벌어진 4개팀리그 1차전에서 崔東原의 호투(탈삼진15개)로 濠洲를 10-0으로대파, 1승을 올렸다. 美國은 이날 파나마를 9-1로 이겼다.

◆야구 ▲1차전

호주(1패)	0	0	0	0	0	0	0	0	0	0
한국(1승)	0	1	1	0	3	1	4	0	×	10

大學生 해외學術조사단 첫派遣

서울大 내달 40명 印尼에…「勉學」조성

成果좋으면 南美·유럽확대
해외硏修교육의 典型 제시

『대학생해외연수』가 시작된다. 본격적인 대학생 해외학술조사단이 처음으로 구성돼 1차로 인도네시아에 파견된다.

이조사단은 金一鐵교수를 단장으로 서울大졸업반및 대학원학생등 40명(지도교수4명포함)으로 구성돼 1차로 오는 8월23일부터 15일간에 걸쳐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할계획으로 30일 사전답사반이 떠난다.

학교당국은 29일 이번조사단의 성과가 좋으면 오는 겨울방학부터는 파견국가를 아세안5개국을 비롯, 南美·유럽으로 확대하고 참가학생수도 늘리겠다고 밝혀 이번조사단파견은 무분별한 해외연수풍조를 바로잡을수있는 연수교육의 모델·케이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大 당국자는 이날 이번 학술조사단파견이 대통령의 아세안순방에 부응, 학술분야에서의 교류및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해외진출에 필요한자료의 수집분석, 대학생의 시야를 넓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뜻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도교수및 성적이 우수한 대학원생및 대학4년생등 40명으로 자연, 농업, 사회문화등 3개반으로 구성된다.

이 조사단은 인도네시아문부성의 협조를얻어 인도네시아大등 5개대학과 각종연구소 및 산업시설등에대한 현장답사를통해 연구조사 활동을 벌이게되는데 자연반의경우 식물·동물·지질학분야를, 농업반은 농촌 임산자원분야를, 사회문화반은 민속·역사·종교·고고학등을집중적으로 연구한다는것.

서울大는 학술조사반이 귀국하면 연구발표회를 갖는한편 종합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교재및 해외진출업체의자료로 활용토록하는등 대학생 해외연수교육의 전형(典型)을 제시하게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大는 사전답사반을 30일 인도네시아로 파견하는데 이어 조사단의 교수·학생들을 상대로 8월중에 1주일간 예절처 모의현장실습등 사전교육도 실시키로했다.

이번조사단은 문교부의 예산지원(3천만원)을 받게되는데 이번학술조사단에 참가하는 교수진은 다음과같다.

◆단장=金一鐵교수(사회학) ▲자연반지도=李仁圭교수(식물학) ▲농업반지도=崔敏浩교수(농업교육학) ▲사회문화반지도=李文雄교수(인류학)

釜山 브니엘女高 8强에

小崗盃 테니스

제9회 小崗盃전국 중·고대항 테니스대회 3일째경기가 29일 장충코트에서 열려 여고부에서 吳長蓮·吳英子가 활약한 釜山 브니엘여고가 지난해 우승팀인 晋州 善明女商을 3-0, 스트레이트로완파하고 8강에 진출했다.

서울 中央女高는 水原女高에 3-0, 朝大附高는 釜山女商에 3-0으로 승리, 준준결승에 올랐다.

남고부서는 慶南高와 公州高가 8강에 선착했다.

黃正五등 우승

世界유도 파견전

제12회 세계유도 선수권대회(9월3~6일·네덜란드) 파견선수 최종평가전이 29일 여의도유도회관서 열렸다.

이날 하프라이트급서 黃正五(유도대) 姜鎬元(동아대) 具相會(경기대)가 치열한 3파전을 벌인끝에 黃正五가 1승1무로 우승했다.

헤비급서는 趙容澈(유도대)이 3전전승으로 우승했다.

◇각체급우승자 ▲하프·라이트급=黃正五(유도대) ▲라이트급=朴鍾學(수경사) ▲하프·미들급=黃珍壽(진양) ▲헤비급=趙容澈(유도대) ▲엑스트라라이트급=??(유도대) ▲미들급=洪??(충북도청) ▲하프헤비급=??(동아대) 金?鉉(유도대) 이상 2승1무승

鳳凰大

전국高校팀 總出戰 8월6일부터 激突

서울運서 熱戰18일…放學동안 펼치는 白球의 드라마

남자排球, 강적 蘇에 完勝

時間差 공격으로 長身壁 뚫어 3-0

루마니아·日·쿠바와 4強戰

레슬링 柳寅卓 첫銀

孫甲道 銅메달

夏季 유니버시아드

【부쿠레슈티=楊森特파원】 한국 남자배구가 강호 蘇聯을 3-0으로 완파, 中共을 물리친데 이어서 또다시 개가를 올렸다.

한국은 28일 새벽(한국시간) 벌어진 제11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9일째 남자배구 준결승리그 B조 최종전서 1시간32분간의 격전끝에 장신의 蘇聯을 3-0(16-14, 15-10, 15-10)으로 물리치고 B조 2위를 차지, 4강의 결승리그에 진출했다. 4강전에는 A조서 루마니아와 日本, B조서 쿠바와 한국이 올라갔다.

이날 레슬링 자유형 라이트급(68㎏) 결승전에서 한국의 柳寅卓은 쿠바의 라울·카스카레트에게 판정패(7-0)당했으나 한국선수단에 첫은메달을 안겨주었으며 주니어플라이급(48㎏)의 孫甲道는 中共의 카오웬시를 13-1로 제압하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테니스 混複式서 銅추가

테니스 혼합복식 3、4위전에서 全奭大·金壽玉조는 체코의 라체크·미로슬로바-브다로바·이바組를 6-4, 6-2로 완파하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선수단은 이날 은메달 1、동메달 2개를 추가함으로써 28일 현재 은1、동3개를 확보하여 메달레이스서 19위圈으로 올라섰다.

한국남자배구팀은 金浩哲·姜斗泰·張允昌·柳重卓·文湧冠·金炯泰등을 스타팅 멤버로 기용했다. 초반 4-5로 뒤지던 한국은 金浩哲의 안정된 토스를 바탕으로 시간차공격을 전개, 7-4로 역전시킨뒤 한점씩을 주고받는 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서브리시브가 불안하여 내리점수를 허용, 11-14로 역전당했다. 빼앗기는가 했으나 한국의 저력은 이때부터 나타났다. 왼손잡이 張允昌이 강타를 작렬시키고 文湧冠·柳重卓·姜斗泰등이 블로킹으로 포인트를따내 16-14로 극적인역전극을펼쳤다.

2세트에들어 南培浩감독은 피로가쌓인 金炯泰를빼고 이자리에 주니어대표로뽑힌 나어린 李龍馨을 기용했다.

한국은 더욱 안정된 플레이를 펼쳐 金浩哲이 좌우로 짧게 토스해주는 볼을 文湧冠·柳重卓등이 속공으로 연결시키고 李龍馨이 자신의 롱슛을 잘해내 5점차로 제2세트를 따냈다.

2m가넘는 선수들이 많은 蘇聯은 세르게이, 알렉산드르, 보리스, 올레크, 스미로프등의 울안강습은 오픈강타로 3세트초반 한때 한국을 크게 위협했다. 이위기에서 張允昌·姜斗泰등의 좌우강타가 위력을보이고 柳重卓·文湧冠·李龍馨등이 金浩哲과 절묘한 콤비를 이루어, 마지막 세트도 5점차로 따냈다.

◇제9일전적

◆남자배구 ▲B조예선최종전

한국 3 (15-10, 15-10, 16-14) 0 소련

◆레슬링(자유형) (4강결승리그진출)

▲라이트급(68㎏)결승 카스카레트 판정 柳寅卓

▲동준결승 柳寅卓 판정 뉴전트 (미국)

▲주니어플라이급(48㎏) 3、4위전 孫甲道 폴 카오웬시(중공)

▲플라이급(52㎏)준준결승 金鍾奎 판정 알리찬(소련)

▲웰터급(74㎏)준준결승 高鎭源 판정 로베르토·후니셔(서독)

◆테니스 ▲혼합복식3、4위전 全奭大·金壽玉 2 (6-4, 6-2) 0 라체크·부다로바 (체코)

배구 對蘇戰 승리 最長身팀 꺾은데에 意義

해설

공산권의 간판스포츠 배구에서 한국남자팀은 中共에 이어 蘇聯마저 스트레이트로 눕히는 쾌거를 이룩했다.

64년 東京올림픽 예선서 처음 대결했던 한국과 蘇聯은 이번 대회까지 모두 8차례 맞붙어 한국이 2승을 기록하고있다.

한국 남자팀은 東京서 스트레이트敗한 이후 5連敗끝에 77년 불가리아 유니버시아드대회 3、4위전서 풀세트 접전끝에 사상 처음으로 蘇聯을 물리쳤다.

첫 승리때 한국은 대표팀을 파견했으며 蘇聯은 대학대표선수들을 출전시켰다. 양팀의 컬러는 이번 대회 역시 77년도와 마찬가지다.

한국이 최근대회에서 연달아 蘇聯을 물리친것은 한국남자배구가 상승세를 타고있다는 증거이다. 비록 대표팀간의 경기가 아니었다하더라도 對蘇戰서의 승리는 큰의미를 나타내는 쾌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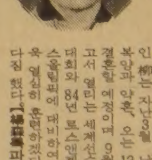
이번 蘇聯팀에는 대표선수 3명이 포함돼있고 이번대회 참가팀중 최장신으로 이루어져있기때문에 한국의 승리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金仁奎기자】

◇韓蘇남자배구 歷代전적 (8전2승6패)

▲64년 東京올림픽 韓0-3蘇(예선)
▲70년 이탈리아U대회 韓1-3蘇(예선)
▲72년 뮌헨올림픽 韓0-3蘇(예선)
▲73년 모스크바U대회 韓0-3蘇(결승리그)
▲77년 불가리아U대회 韓1-3蘇(준결승리그) 韓3-2蘇(3·4위전)
▲78년 로마세계선수권 韓0-3蘇(준결승리그)
▲81년 루마니아U대회 韓3-0蘇(준결승리그)

◇부쿠레슈티 유니버시아드에서 中共과 蘇聯을 연달아 격파하고 4강이 겨루는 결승리그에 진출한 한국남자배구팀. 사진은 요르단과의 예선경기. 【楊森特파원찍음】

레슬링 銀메달리스트 柳寅卓
재빠른 正面태클이 長技



柳寅卓은 결승전서 루마니아 선수에 판정패했으나 『외로 쓰러지는 몸이 빨라 특기인 정면태클을 활용할수 없었다』며 우승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금년 25세. 全北 金堤출신으로 76년 裡里農高2년때 레슬링을 시작, 대표로 金益鍾코치에 발탁되어 任宋公社에 입사한후 79년에 한국대표로 뽑혀 아시아선수권대회(인도)에서는 실패했으나 日本전지훈련중 세계랭킹1~4위만 출전하는 슈퍼월드컵 대회에 부상당한 부분선수대신 참가, 예상을 뒤엎고 은메달을 차지하여 매스콤의 각광을 받았다.

키1m67, 힘이 세고 크게 실력이 향상되었다. 정면 태클이 강한 선수.

全州大4년에 재학중인 柳는 지난3월 남상복양과 약혼, 오는 12월 결혼할 예정이며 9월유고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와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대비하여 더욱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楊森特파원】

올림픽 서울誘致
IOC總會맞춰서 西獨서 캠페인展

정부는 88년 제24회 夏季올림픽대회서울개최여부에 대한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총회의 결정을 앞두고 IOC총회가 열리는 西獨의 바덴바덴에서 9월22일부터 올림픽 관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저를 기록했다. 春川高는 강적 善成高와의 대전에서 6회말 2死후 4번 韓尙璜의 우월결승3루타에 힘입어 9-7로 승리했다.

◇첫날 1회전

보성고	2	0	1	0	0	0	0	0	4	7
춘천고	0	0	6	1	0	1	1	0	0	9
서울고	0	0	0	0	0	0	1	3	1	5
영등상고	0	0	0	0	0	0	0	0	0	0

在佛미술가協 결성

파리畵壇에서 창작활동하고있는 화가 60여명이 처음으로 在佛미술가협회를 창립, 단합을 과시했다.

작가들의 이번 미술가협회결성은 지난30년대 한국화가들이 파리화단에 발을 딛기 시작한 이래 실로 50년만에 단합된모습을 보여주었다는점에서 흐뭇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지난5월8일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발기총회에서는 대표에 韓默씨, 운영위원에 金鎭韓 鄭相和 鄭文圭 秦惟英 韓昌造 孫秀光씨를, 또한 자문위원엔 金鍾夏 朴一柱 白가노미 白榮洙 孫東鎭 李恒星 李聖子씨를 각각 선출했다.

이와함께 내년도사업으로서 프랑스작가의 한국초대와 프랑스 평론가초청세미나의 개최, 韓·佛문화교류증진을 위해 본국화단과의 협의를 확정하고 金鎭韓 韓昌造 秦惟英씨등 운영위원3명을 서울에 파견했다.

◇본국화단과 협의차 서울에 파견된 在佛미술가협회 운영위원들. (左로부터 韓昌造 金鎭韓 秦惟英씨)

서울에 온 이들 운영위원들은 『지난 수십년간 협회를 결성하기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작가들의 특유의 我執과 파벌의식으로 번번이 실패했다』고 밝히고 이번에도 流派의 벽이 높았으나 30대 작가들이 앞장서 주도, 협회결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在佛 미술가협회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작가들의 정보교환, 작품활동및 창작활동을 돕고 회원자격은 국내에서 美大를 졸업하고 파리에서 활동하는 중견작가로 제한했다고 밝히고 이들은 在佛 미술가협회가 파리화단을 위주로 운영되는것은 아니라고밝히고 단계적으로 스페인, 독일등 유럽지역을 모두 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약하고있는 작가 10명을 초청, 내년에 파리에서 전시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신인발굴작업은 매년 계속될것이라고 전했다. 【薰】

廢타이어 태워서 熱회수
無公害…중유보다 값싸
在日동포 吳世鍾씨가 개발

새특허 발명

폐타이어를 무공해로 태워 많은 양의 열을 얻어내는 장치가 재일교포 吳世鍾씨(64)에 의해 개발됐다.

吳씨의 폐타이어 소각열회수장치는 폐타이어를 일단 1차소각로에서 불완전 연소시켜 섭씨 8백도 정도의 1차가스를 얻어낸다음 이를 9백도의 2차연소실에서 공기를 충분히 공급, 3차연소실로보내 1천도의 高溫에서 완전연소할 수 있도록한것.

타이어는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로 만들어 진다. 그런데 합성고무의 재질은 대부분 스티렌과 부다디엔의 중합체인 스티렌부다디엔 고무로 되어있다. 그래서 이들을 태우게되면 각종유해가스를 내뿜게 된다. 이때문에 매해 많은 양의 폐타이어가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이를 깨끗이 처리하는 방법이 없었다.

吳씨는 자신의 폐타이어소각열회수장치를 이용하게되면 폐타이어의처리는물론 중유 값의10분의1정도로 연료를 얻어낼수 있다고.

慶北善山서「甑城」발견
檀大조사단 해발1백50m 上峰서

【善山=聯合】 慶北 善山에서 甑城(시루城)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檀國大학술조사단(단장 鄭永鎬박물관장)은 지난28일 善山邑 洛東江서쪽의 원당산 해발1백50m 위에 있는 산성을 발견했다.

이 산성은 둘레가 3백m 현존 토루(土壘)높이가 2m, 폭4m의 규모로 그정상에는 朝鮮시대에 설치된 봉수대(烽燧臺)자리가 남아있는것.

이곳은 예부터 낙동강을 바로 밑에 두고 위치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이용된곳으로 후삼국시대의 (甑城)으로 축성된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流星의 賊 〈144〉

亡兆의 日月 ⑳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서(西)의 싸움이 선조관에 번졌다. 동인의 자제인 이정우(李廷友)등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이와 성혼을 심히 비방한 것이라는데 『전일의 유공진등의 상소는 이이와 성혼들의 친척과 당파가 조작한 것이니 결코 공론(公論)이 아닙니다』 하는 대목이 주목할만 했다.

이정우들이 삼사(三司)의 자제들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시정(市井)의 사람들이 그것을 「삼사자제소(三司子弟疏)」라고 비웃었다는 사실이 일월록(日月錄)에 기재되어 있다.

양사에서 임금이 전일 송강을 내보낸 사실을 두고 이는 참으로 잘못하신 일이라며 그들을 용서할 것을 청했다.

그러자 임금은 『송(宋)나라 때에 육적(六賊)이 조정을 차지하고 이강(李綱)이 조정을 떠나자 태학생 진동(陳東)이 상소하여 준엄하게 논(論)했다. 천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기풍과 절의를 듣고 저도 모르게 소매를 걷고 일어서게 된다. 이번에 유공진등이 올린 상소는 유생들이 조정의 잘못되어 가는것을 보고 의(義)를 주장하여 항변한 것이니 실로 송나라 진동의 상소를 방불케 한 바 있다. 그 굳건한 충의의 지당은 가히 범할 수가 없을 뿐더러 참으로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은 것으로서 분류하는 풍파운에 우뚝 서서 요동하지 않은 황하(黃河)의 지주석(砥柱石)이라고 할만 하다. 태학(太學)은 공론이 있는 곳이다. 조정의 시비는 때에 따라 어긋날 수가 있지만 태학의 공론이야 어찌 폐(廢)할 수 있겠는가』

하는 대목이 있었다. 내가 즉위한 이래 제생(諸生)들의 상소를 많이 받아 보았지만 그 가운덴 남의 허물을 고자질하는 것이 어찌 없었으랴만, 내 일찍이 한번도 좋지 않은 기색을 보이지 않은 것은 선사 방범된 유생의 말이라도 그저 그렇게 대하려 두자고 한 것이었는데 하물며 이 소는 정직한 기운이 뚜렷한 것이었다. 그런데 저 조그만 무리가 근일한 곳에 있어 방자하게 날뛰어 사람의 말을 막고, 나의 총명을 가리우면서 감히 어린 유생들의 상소를 패란(悖亂)한 것이라고까지 지목하니 이 역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귀양 보내는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기운이 범을 거해하지 않아서 낮도깨비 같은 놈들이 휘날게 되어 못할 짓이 없으니 이미 형벌에 처한 것인데 양사에서는 어찌하여 그놈들을 부둔하려 하는가』

고 호통을 쳤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이 성혼을 변명하는 소가 잇따라 들어왔다. 신립장군의 종생 신급(申礏)의 상소가 그러했고, 전라도 유생 서태수(徐太壽)등 2백40명, 황해도의 유생 이대춘(李大春)등 1백80명의 상소가 그러했다.

이대춘의 상소엔

『일찍기 이이가 웅개의 사람됨이 대대로 아하며 또 민가를 헐고 그 아버지를 장사하였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웅개가 이이에게 원한을 품고있었던 것입니다』

하는 대목이 있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產을 위협 합니다.

나의 이력서

윤치영 ⑦

〈題字·윤치영〉

中央學校시절

나는 15살때인 1913년봄 校洞소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어른들의 권유로 官立漢城고등학교(현 京畿高校)에 입학했다.

코흘리개로 한창 뛰어놀다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것이다. 골목대장소리를 들을정도로 개구장이였지만 校洞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덕분에 무시험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漢城중학교는 처음부터 어쩐지 마음에 들지않았다. 당시 정부가 官學의 모범校으로 설립한 漢城중학교는 내일의 英才 특히, 初級관리를 기른다는 명목아래 전국 소학교의 우등생들만을 입학시켜 제법 권위를 자랑했고 재학생들도 一流학교라는 자부심을 갖고있었지만 무엇인가 어면적의식을 가진, 틀에잡힌 교육내용이 못마땅했다. 입학초부터 日人교장이 일본어 독본을 가르치는것도 그렇고 또 딱딱한 官學의校風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않았다.

그러고보니 어떤 규격적이고 人爲的인 분위기나 제도를 꺼리는 호날 일생동안 나의 결정이가 되어온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은 벌써 이때부터 싹이텄는지도 모른다.

漢城중학교를 10일쯤다니다가 내게인판단으로 中央학교로옮겼다. 漢城중학이 日人들의 학교였다면중앙중학은 순수한 한국인학교라고할 정도로 개화사상이 가득찬 학교로 나는 입학부터 이학교에 관해 많은 얘기를 들어온터였다.

혼자서 하루아침에 학교를 옮기자 부모님과 형님을 그리고 친척어른들은 『의논도없이 함부로 학교를 옮길수가 있느냐』 『내일부터 당장 한성중학교로 돌아가라』고 호통근심이셨다. 이바람에 10여일동안 집에 들어앉아서 어른들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과 형님들은 나의 굳은의지를 이해해주셔서 마음놓고 중앙중학교를 다닐수 있었다.

漢城中學진학…분위기딱딱해옮겨
愛國的학풍속 자유주의思想길러

◇서울鍾路區花洞에 자리잡았던 1910年代의 中央學校校舍. 50여간의 單層韓屋이었으나 교사와 학생들의 意氣는 매우 드높았다.

중앙학교는 당시 다른학교들과같이 韓末에 기우는 國運을 일으켜세우기위한 愛國志士들의 救國이념과 이른바 新교육운동의 産物이다. 1900년에 들어와 일본의 탄압으로 정치활동을 못하게되자 鍾路의 갈린 志士들은 『나라를 바로잡는길은 오직 교육뿐이다』라는 신념아래 다투어 學會를 만들었다. 즉 1906년 李儁 薛泰熙등 함경도인사들중심의 漢北興學會를 필두로, 關城教育會, 平安道와 黃海道인사들의 西友學會, 李甲 柳東說 盧伯麟의 漢北學會(兩者는후에 西北學會로통합) 俞吉濬 金允植 尹致昨의 興士團, 그리고 湖南學會 畿湖學會 嶺南學會 大東學會 關東學會 국민교육회 進明婦人會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지방에서도 많은 學會가 출지어 만들어 졌으며 學會들은 거의가 大小學校를 세워 운영했다. 오늘의 私立학교라고 할수있다. 중앙학교는 여러학회와 학교의 통합으로 생겨난학교다.

중앙학교의 母體는 1908년 서울·京畿·충청도중심의 인사들이 만든 畿湖興學會다.

李容植 尹雄烈(伯父) 金允植등이 歷代회장인 이학회는 各界의 義捐金을모아 畿湖학교를세웠다.당시 역사학자 申采浩가 학회發起文을썼으며 畿湖學校학생으로는 趙東植(前國學학원설립자)과 北傀초창기 인민위원회부위원장을 지냈다가 숙청된 金科奉등이 들어있다.

畿湖學校는 설립이듬해인 1910년 興士團의 隆熙學校를 흡수하고 1년후에는 畿湖興學會가 湖南인사중심의 湖南學會, 경상도인사중심의 嶠南教育會, 강원도인사들의 關東學會등과 통합, 金允植을회장으로 中央學會로 발족시켰고 학교도 중앙학교로 改名 출범했다.사실상 이땅初有의 명실상부한 民立학교로 출발한것이다.

당초 중앙의 前身인 畿湖學校는 漢城 北部 昭格洞에 있는 舊육군衛生院(현 수도육군병원)을 빌어 문을 열었다가 校洞에 있는 舊法語학교로 옮겼고 이어 花洞 138번지로 이사했다.

花洞교사는 大屋3棟 小屋2棟의 韓式단층건물로 나중 이곳에서 東亞日報가 創刊, 한동안 社屋으로공동사용했다.

나는 바로 花洞시절에 입학한 것이다. 중앙학교로 발족한후에도 교사진은 일부 극소수의 日人을 제외하고는 愛國志士인 濟濟多士들이列立, 그들이 인도하는 學風과기개는 하늘을 찌를듯했으나 운영비부족으로 교사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학교운영이 벽에부딪자 1913년 학교維持총회를열어 회장에俞吉濬,부회장에漁瑄善을선출하고 李商在 朴勝鳳 俞星濬 李鳳珪등을 위원으로 새로운 학교경영을 인수할 인물을 찾기로했다.

결국 2년뒤 仁村 金性洙가 인수를 결심, 그의 養父 金祺中 生父金暻中형제를 설립자로 중앙학교는새로운 시대를 맞게되었다.

全北高敞출신인 金씨형제는 나라가 기우는것을 보고 慨然히 育英에 뜻을 두어 鄕里에 私立학교를 세웠고 나중 仁村이 早稻田대학졸업때 日本의 교육기관을 둘러보고 돌아와있어 仁村의 결심을 뒷받침, 오늘날 같이 桂山언덕에 새교사를 지어 학교기반을 튼튼하게 한것이다.

畿湖학교때부터 歷代교장은 尹孝定(大韓協會총무) 2代 柳瑾 3代 俞星濬 4代이자 중학교 초대교장은 나의 당형인 尹致昨, 이어 俞吉濬 權東鎭 南宮薰이 맡았다.

崔德新아들을 手配
5千여萬원 就業사기…도망쳐

서울江西경찰서는 29일 미국에 망명중인 전 천도교교령 崔德新씨의 2남 崔仁國씨(34·서울江西區新亭洞1032 江西연립주택1063호)를 사기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의하면 전 코오롱종합건설 해외인력관리부 차장이었던 崔씨는 지난해 8월초 전북南原郡寶峰面孔安里 1區810) 오갑철씨(45·농업)에게 해외취업을 시켜준다며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같은수법으로 70년10월부터 지난5월까지 32명으로부터 모두 5천8백여만원을 받아 달아났다는것.

피해자 오씨에의하면 지난 8월초 李모씨를통해 알게된 崔씨가 자신은 물론 동네 사람 10명에게 사우디에 취직시켜준다며 1인당 20~30만원씩 모두 2백40만원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한뒤 아무소식이없어 지난 6월초 찾아갔으나 崔씨는이미 달아난뒤였다는것.

崔씨는 미국에서 고교와대학을 졸업, 지난70년 고관자녀병역미필자 소환케이스로 귀국한뒤 군복무를마치고 모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 78년 10월부터 코오롱종합건설에서 일해왔다.

北傀 軍事力강화 60여萬명 규모
日防衛廳장관 밝혀

【東京28日UPI=聯合】오무라·죠오지(大村襄治)일본방위청장관은 28일 북한이 최근수년동안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해왔다고 강조했다.

오오무라장관은 이날 참의원에서 행한 발언을통해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며 이는비록 간접적이긴하나 일본에대한 영향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오무라장관의 북괴군사력증강발언은 한반도안전보장을위해 경제협력을 대폭강화해야 한다는 최근의 韓·日양국현안문제와 관련, 시기적으로 주목을 끌고있다.

이날 또한 오까자끼(岡崎久彦) 방위청참사관도 이날 참의원발언에서 북한군이 적어도 40개사단 60만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병의 기계화가 이루어져 있을뿐 아니라 약10만명으로 특수게릴라전부대가 결성돼있다고 지적했다.

오까자끼 참사관은 또 북한해군이 작년 함정을 20척 늘려 총4백30척의 함정을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6척은 잠수함이라고 밝혔다.

오까자끼 참사관은 이어 북한의 전술항공기수가 45대가 증가, 모두 6백18대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大東輿地圖보다 160여년 앞선
東國輿地之圖·日本輿圖 공개

金正浩의 대동여지도보다 160여년이나 앞서 제작된 우리나라와日本의 옛지도2장이 공개돼학계의관심을모으고있다. 이지도는 전남海南郡蓮洞里에있는 孤山 尹善道의 14대종손 尹亨植씨가 소장해온것으로 金儀遠국립지리원장과 日本東京의 한국연구원 崔書勉원장이 지난 26일 현지에내려가 확인함으로써 대동여지도가 나오기전에 만들어진 옛지도중에서는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白頭山부근에서는 土門江과 豆門江(豆滿江)의 江原과 흐르는위치를 분명히 했을뿐아니라 尹瓘의 정계비가있는 先春嶺을 두만강건너 북쪽으로 깊숙이 들어간곳에 표시, 두만강북쪽땅 일부가 우리영토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 최근 中共측이 주장하고있는 土門江과 豆滿江이 같은강이라는 설을 반박할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될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제작자는 尹씨의11대조이지 尹善道의 증손인 恭齋 尹斗緖(1668~1715)인데 恭齋는 朝鮮朝중엽 謙齋 鄭敾및 玄齋 沈師正과함께 三齋로 꼽히는화가.

천7백年代것…가장값진 地圖

◇恭齋尹斗緖의 自畵像.

국립지리원초청으로 이 지도를 고증하기위해 내한한 崔원장은 우리나라지도인 東國輿地之圖를 감정한후『이제까지 보아온 우리나라 古地圖중에서는 가장 값진것』이라고 흥분하면서『자세하고 정확한 정도가 국방상 필요에의해 지역별備邊司(요즘의 國境警備司)가 만들어 사용했던 지도와 맞먹는다』고감탄했다.

이지도의 특징은 우선 제작연대가 서기1700년 전후로 金正浩의 대동여지도가 나온 1861년보다 1백60년이나 앞섰고 고읍마다 地名에 서울(漢陽)까지의 일정표시(예컨대 天安에는 二日程으로 표시)를 달아놓은것등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도로서는 처음으로 凡例를두어 고을의 크고작은곳과 도로망, 수로(항로), 산맥, 하천등을한 눈에 알아볼수있도록 치밀하게 표기했고 다른 옛지도가 대체로 5백만을 사용한데반해 이지도는 산맥을 녹색, 강은 연한 하늘색으로 그리는 등 다양한 색깔을 배합하여 전체적으로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있다는게 崔원장의 말이다.

내용에있어서는 東國輿地勝覽과 다른부분이 많고 남해안의 섬위치나 濟州道, 對馬島의 모양은 실제와 가깝게 그려 恭齋가 직접 답사한 뒤 제작한것으로 추정된다.

북쪽의 경계선 표시는 정확하지 않으나 白頭山을 중심으로한 韓滿접경지대의 인구밀집상황, 소촌락, 지명을 상세히 기술했고 土門江과豆門江의 흐름을 그린것과는별개로 여백에다 강의근원에대한 메모를남겼다. 土門江에서 豆門江에 이르는 중간지점에는 先春嶺과 尹瓘의 정계비를 각각 표시했다.

우리나라 옛지도의 특색은 자료가 많고 현장답사가 쉬운 중남부지역을 자세하고크게 그리면서 북부접경지대는 한일자형으로 적당히 만드는 경향이 두드러진것인데, 이지도역시 북방접경지대는 거의 한일자형으로 그렸으면서도 내용을 워낙 자세하게 기술하고있어 당시의 備邊司지도를 많이 참조한것으로 풀이되고있다.

◇恭齋尹斗緖가 남긴 韓·日 두나라 지도(사진㊦)가280여년만에 새로운각광을 받고있다.

이 지도는 또 獨島를 울릉도와 함께 명백하게 표시해놓고있는데 또하나의 지도인 日本輿圖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竹島가 對馬島와 日本 北九州사이에 위치해있어 관심을 끈다. 日本輿圖는 임진왜란후 그들의 再侵에대비하기위해 조정에서 恭齋를 日本에보내 제작케한것인데 竹島의위치가 전혀 동떨어진곳에 나타난것이다.

◇東國輿地之圖를감정하고있는 崔書勉씨㊥, 金儀遠원장㊧과 종손 尹亨植씨.『가장 값진 古地圖』라는 흥분을 자아냈다.

尹善道증손 恭齋尹斗緖가 제작
색갈로 凡例…道路·河川등 한눈에
豆滿江북쪽일부 우리領土 입증

崔원장은 유럽의 옛지도에 竹島를 對馬島와 北九州의중간에 표시한게 더러있고 日本측은 이같은 지도상의 竹島가 울릉도나 독도를 잘못표시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 恭齋의 두가지 지도로서 울릉도와 독도이외에 竹島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최근들어 對馬島와 北九州사이의 竹島는 실재하지않는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옛지도에竹島표시가 있었던것은 당시日人들이 제작한 지도가 본래부터잘못되어있었기때문에이를 모방한 유럽의 옛지도가 결과적으로 뒤따라 오류를범하게된것뿐이라고 말했다.

日本輿圖는 東國輿地之圖와 비슷한 시기(1700년전후)에 제작된것으로 판단되나 에도(江戶)가 수도로 표시되지 않은점으로 보아 1603년 이전의 자료에의해 만들어진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두지도를 그린恭齋는 해남尹씨의 자손이었다가 종가에 입양했으며 茶山 丁若鏞의 외증조부로서 英祖때嘉善大夫 戶曹參判同知義禁府副總管의 벼슬까지 지낸것으로 기록되어있다.

화가로 알려져있으나 문무를 겸전했기때문에 西人들이 집권하고있으면서도 南人인 그를 日本에 파견, 지도를그려오도록했다는게 종손 尹亨植씨의 말이다.

지도의 역사를보면 처음에는 지도라기보다 그림에 가까웠던 세계 각국의 공통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金正浩의 대동여지도가 나오기전의 옛지도는 繪畵圖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옛지도는 1백20년전에 金正浩가 만든 대동여지도를 과학적인 축지법에의해 제작된 최초의것으로 꼽고있으나 恭齋보다 10여년 후에 살았던 農圃子 鄭尙驥(1678~1752)는 회화도에 이미 축지법을 도입, 대동여지도와 손색없는 東國地圖를 제작했었다.

따라서 恭齋의지도는 지도제작기법이 근대화되기 직전의 마지막 작품인것으로 볼수있어 연구대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것으로 비교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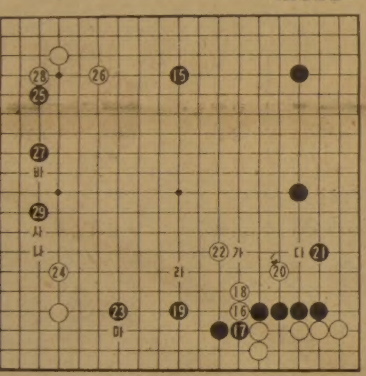
국립지리원 의뢰로 지난해 韓國地誌를 편찬했던 서울大李燦교수는 『아직 恭齋의 지도를 직접보지못해 무어라고 말할수 없으나 恭齋가 직접 지도를 그려 남겼다는사실은 알고있으므로 하루빨리 찾아가 연구해볼생각』이라고 말했다.

【海南=朴仁淳기자】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4局 第3譜 15~29 (각 5시간 덤 5집반)

白(名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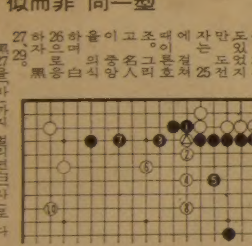


黑15로 발빠르게 요소를차지하고白16이하 黑19까지진행된데서 자네는 아마 白20을 제1국처럼「가」자리에 뛰어나갈줄 알았겠지. 실상나도 똑같은생각을 하고있다가 빗나가버렸으니, 나역시 별수없는 모양이야.

설명이 좀늦었지만 원래白16은 좌상귀를 25자리에 굳히는것이 보통인데 名人은 非普通의식으로 급전을 피한 절세. 그건그렇고 제1국은 서로도기억하고있듯이 참고도처럼 白스표에대해 黑1로 굳고 이하白10까지 되었는데 이바둑은 白20, 22로 변해버렸거든. 여기서도白20으로좌하귀를「나」에 굳히고 黑「다」白「라」면 역시 보통이라고 알아두게.

黑23. 이수는「마」의 곳을 주장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도전자는 25에 적절히 대처했다. 이는 호조. 그리고 名人이 중앙을 의식하며 26으로 하자 黑27, 29.

似而非 同一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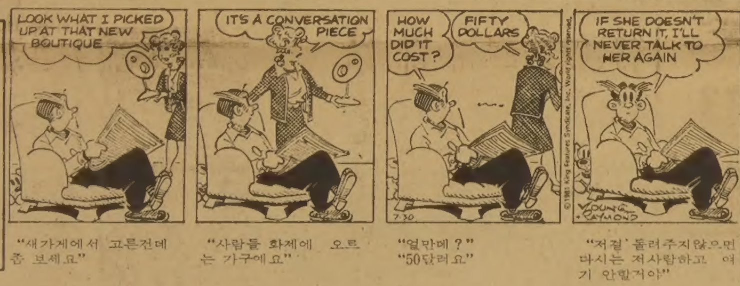


黑27을「바」까지 벌리면白「사」로 다가오는것이 싫었던 때문에 좌우간 도전자는 오늘따라 발이무척 빨라보이더군. 이렇게 조석이 일단락되었을 때 자기 창밖에서 야무진 피리 소리.

【一凡】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새가게에서 고른건데 좀 보세요"　"사람들 화제에 오르는 가구에요"　"얼마예?" "50달러요"　"저걸 돌려주지않으면 다시는 저사람하고 얘기 안할거야"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모눈종이 위의 生 <161>

趙善作　禹慶熙畵

그림자놀이 ⑦0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처음에는 내 손을 떼어내려는듯하다가 이내 부드러운 손길로 내 손등을 덮었다. 그는 아마 연민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었다. 내 손등을 덮은 그의 부드러운 손이 내게 그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연민을 탓할 계제가 못되었다. 그가 나를 질타해서 내쫓지않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야만 했다. 잠들기 전 나는 그런 것들을 그에게 빌었고, 내 기도는 용액이 되어 그의 피에 섞인 것인지도 몰랐다. 그가 다른 한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내 벗겨진 어깨를 덮어주었다. 나는 눈물이 번진 눈을 떴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슬픈 표정을 짓고있었다. 그가 내 손등에서 손을 떼어내 이마를 덮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를 올려다 보며 마치 여기까지 왔는듯이 감격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예요.』

『알아. 말하지 마.』

그는 자그마하게 한숨까지 내쉬며 대답했다. 그랬다가 또 이마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열이 있어. 좀 심해.』

그제서야 나는 내 몸에 신열이 높은 것을 깨우쳤다. 과로와 긴장과 추위가 밤새 몰고온 병이었다. 어느새 출입문의 창호지에 새벽이 하얗게 밝아왔다. 책상으로 쓰고 있는 밥상 한모서리에 촛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빛은 빛을 잃고 있었다. 문 밖에서 새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참새떼들이 지저귀는 소리속에 까치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스피린을 좀 얻어올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가 말했고, 그는 잠옷을 벗고 바지를 갈아입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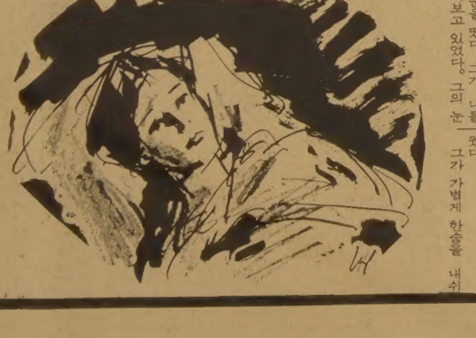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대신 나는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의 손은 가볍게 끌려왔다. 그러나 몸까지 딸려온 것은 아니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좀 쉬어야 해』

나는 그가 한 말을 되새겨 보았다. 얼핏은 병을두고 하는말 같이 들렸는데, 그에 대한 나의 싸움 전체를 두고 한 말이었다. 게다가 지금 그의 손을 끌어당기는 내 요구를 경계하는듯한 여운까지 풍기고 있었다. 그가 입으로 불어 촛불을 껐다. 촛불을끄니까 밖은 회부옇게 밝았다. 그가 옷을 벗는지 바지에서 허리띠의 고리가 쇳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그가 말했다.

『와이프가 올 거야. 옌시엄, 하루에 한번씩 부식을 만들어 나르지. 여길 가르쳐준 건 미스 노인가?』

나는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내 곁으로 들어 왔다.



「괜찮아요」라고 나는 말했는데, 말하기도 힘든 것이 결코 괜찮지가 않았다.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병이 그가 일깨워주자 곧저항력을 잃은것 같았다. 안압(眼壓)이 높아 나는 눈을 뜨고있기도 힘들었다. 눈을 감자 내 의식은 자지러들듯이 가라앉았다. 의식뿐만이 아니었다. 몸도 허공에 뜬 깃털처럼 부유(浮遊)했고, 눈을감은 미세한동작 하나로 세계의 소멸(消滅)과 마주한느낌이었다.

그는 곧 아스피린을 구해왔다.

나는 그가 건네는 정제 아스피린 두알을 입에넣고 물을삼켰다. 또 다시 피로가몰려왔다. 나는 가까이 있는그의 손을 찾아쥐고 자리에 누웠다. 그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변호사
534-1129
534-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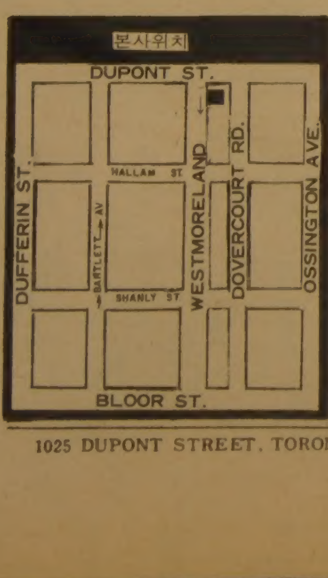
우편파업을 극복합시다

■ 본사는 파업중에라도 신문을 매일 발행, 주3일 식품점등에 배달하여 독자들께서 무료 픽업하실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 파업이 끝남과 동시 그간 못보내드렸던 신문을 전부 우송합니다.

★ 정상근무를 계속하는 본사는 특히 파업기간중 수금이 안돼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읍니다. 광고료및 구독료등을 인근 식품점에 맡겨 두시거나 본사 근처를 지나시는 길에 잠간 들려서 내주시면 크게 감사하겠읍니다.
어려운 때인 만큼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신문 계속 발행
광고 계속 접수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무료픽업처

고려식품
동양식품
반도식품
한국식품(본점)
　　　　(동부)
〃　　　(서부)
한밭식품
서울식품
삼복식품
한국관
한국일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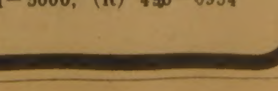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NORTH YORK　GM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병권 올림

김병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레바논休戰 瓦解위기에

PLO、偵察 이機에發砲…시리아、擊墜경고

【베이루트28日UPI=聯】 이스라엘공군기 2대가 레바논내 팔레스타인 게릴라들과의 휴전 5일째인 28일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난민촌 상공을 정찰비행, 팔레스타인측의 對空포공격을 유발했다고 경찰소식통이 말했다.

"中東戰재발경우 蘇, PLO支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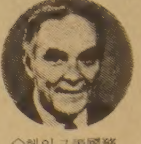
아라파트補佐官

軍事的 응용가능한 製品·技術

對蘇수출 강력統制토록

헤이그、西方國에 촉구

"모험주의 견제 共同대응책필요"



◇헤이그美國務

【워싱턴28日AP·UPI=聯】 헤이그 美국무장관은 28일 西歐맹방들에 대해 군사적응용이 가능한 제품과 기술의 對蘇수출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해줄것을 촉구했다.

헤이그장관은 이날 美상원 재정위원회의 국제무역소위원회에서 행한 東西무역정책에 관한 증언에서 『소련의모험주의와 무력사용』을 견제하기위해 서방국들이 경제·외교정책부문에서 집단적인 공동대응책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와같이 촉구했다.

그는 미국정부가 ①소련의 군사장비생산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우려가 있는 제품 및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고 ②소련의 모험주의와 무력사용에 대응키위해 서방국가들이 대응태세를 강화, 비상계획부문의 협력을 증진해나가야 한다는것을 東西무역정책의 2개주요지침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헤이그장관은 또 소련이 중동 기타 독립국들을 침략할경우 西歐맹방들이 무역보이코트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비상계획을 발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그長官은 이날또 西歐국가들이 소련산 천연가스수입을 증대하려하고 있는데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정부는 현재 이같은 西歐國들의 對蘇접근노력을 대체시킬만한 에너지자원 개발계획을 서두르고있다고 밝혔다.

헤이그國務강조

"蘇의 對波침공시 交易중단 措置를"

蘇艦 日海峽통과

日防衛廳서 확인

【東京28日AP=聯】 볼라디보스토크를 모항으로하는 소련 태평양함대의 ... 28일 소련함정 7척이 ...

駐사우디 美國大使

헤이그와 不和사임

英、결혼식날에도 暴動계속

【리버풀29日UPI=聯】 지난 26일 재연된 영국 항구도시 리버풀의 폭동사태는 찰즈황태자의 결혼식을 수시간 앞둔 29일 아침까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않은채 연4일째 계속되고있다.

메아리

「6·5」의 記錄

찰즈皇太子 어제華燭

룬치大主教집전 바오로聖堂서

70분간擧行 沿道엔百여만雲集

【런던28日外信=聯】 영국의 왕위계승자인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양의 세기적인 결혼식이 20여개국의 국가원수등 2천5백여명의 세계각국의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상오11시(韓國시간 하오7시) 이 런던의 聖바오로 대성당에서 거행됐다.

결혼의식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모였읍니다…』라는 聖바오로 대성당 주석사제 앨런·웹스터 신부의 말로 개막돼 로버트·룬치 캔터베리 대주교의 집전으로 진행됐으며 찰즈황태자는 황태자의 신분이 아닌 찰즈·필립·아더·조지로서, 다이애너양은 스펜서백작의 영애가 아닌 다이애너·프랜시스로서 결혼서약을 했다.

이어 찰즈황태자는 다이애너양에게 엘리자베드 여왕을 포함, 영국왕실가족 4명의 결혼반지와 같은 웨일즈産금반지를 끼워줬으며 집전자인 룬치대주교는 이에 따라 『나는 두사람이 부부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성혼을 선언했다. 약70분동안 계속된 결혼의식은 집전자의 성혼선언후 전례가 없는 로마·가톨릭의 바실·흄추기경에 의한 축도를 포함, 성경봉독과 기도로 이어져 룬치대주교의 아멘과 영국국가를 제창으로 막을 내렸다.

찰즈 皇太子

위험한運動즐기는 액션·맨

個性강하고 國民과도 친숙

◇결혼기념 公式寫眞은 찰즈 황태자와 다이애너양. 버킹검宮이 내놓은 공식 결혼기념사진.【外誌】

다이애너 皇太子妃

색슨王朝 이후의 名門후예

保姆도지내고 수줍음 잘타

◇聖바오로聖堂에 모인人波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양이 결혼식을 올린聖바오로 성당에는 며칠전부터 수백명의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혼잡을 이루었다. 【런던AP=聯】

成事는 반지끼워주는 순간에

버킹검宮서 바오로聖堂까지 각국元首 17명同行

◇불꽃놀이 點火 찰즈英國황태자가 혼전야인 28일밤 그의 결혼을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진행되는동안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점화하고있다. 【런던29日AP=聯】

◇慶祝人波속의 비키니 비키니차림의 여인들이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양의 결혼식행렬이 통과하는 길목에 자리를잡고 영국기를 들고있다. 【런던28日AP=聯】

199m 붉은색 카피트밟고 24계단 올라

英國국내

떠들썩한 結婚式에 一部에선 反應냉담

"稅金안내면서 돈 너무많이써"

과테말라서 美神父被殺

【과테말라시티29日UPI=聯】

리비아顚覆아니고 모리타니가 目標

CIA계획에

【워싱턴28日UPI=聯】

오늘의 小史 <30일>	
▲獨 정치가 비스마르크死去	(1898)
▲英 광산법 제정, 소년의 지하노동금지	(1900)
▲日·露비밀협약 조인	(1907)
▲전국학생연맹 결성	(1946)
▲국제적십자총회, 세균전 금지협정 가결	(1952)
▲국보위,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	(1980)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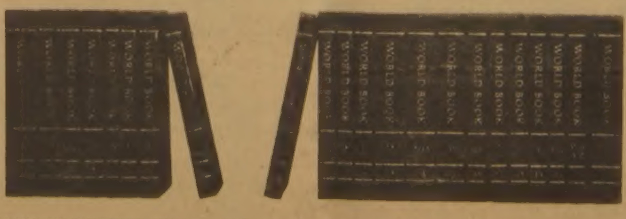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 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 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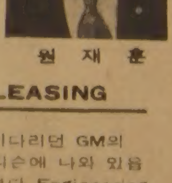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 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533-2363 (9시~4시) 769-4366(저녁7시이후)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가 에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숀널 J2000를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이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